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좌로부터 孫一根상임부회장, 郭永馱(참여부문) 동문 부부, 吳然天총장, 林光洙회장, 李成太(영광부문) 동문 부부, 鄭啓泳(협력부문) 동문 부부.

1천여 동문 참석리에 정기총회 盛了

林光洙회장 재선임
관악대상 시상도



林光洙회장은 개회사에서 "33만 서울대인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선다면 모교는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면>

관악출추

정보화시대가 꽃피우고 있는 오늘날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발전할수록 인간관계는 날로 소원해지고 있다.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혼자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디지털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솔로(solo)시대라는 것이다. 점심식사도 혼자서 하고, 심지어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본다. 마트에서는 1인용 포장식품을 팔고 가전제품회사는 2인용 전기압력밥솥과 미니 냉장고를 만들어

판다.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다. 기숙사에서도 혼자 방을 쓰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없다. 대학교 동아리 모집에 학생들이 응하지 않아 애를 먹는다. 이러한 나홀로시대, 싱글(single)시대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불행스런 삶을 가져다준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이 뿌리 깊은 사회이다. 따라서 솔로시대의 젊은이들은 학교를 나와서는 외톨이가 된 채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혼돈을

중흥기에 들어선 총동창회

겪지 않는 방법은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손쉽게 대인관계를 맺으려면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캠퍼스에서 함께 지낸 동창생과 어울려야 한다.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언젠가 고독할 때에 청춘의 향수가 엄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학창시절의 우정 때문일 것이다'라고 썼다. 로마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다"라고 설교했다. 학창시절의 우정이라든가 인생을 배우는 문제를 서울대 졸업생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총동창회에서 찾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는 그동안 서울대의 개학 원년을 정립했고, 고층의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을 세웠다. 또 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려 지급했다. 무엇보다 서울대인은 모래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바꿈시켰다.

3월 16일 총회에서 林光洙총동창회장이 회장에 재선임됐다. 지금까지 동창회가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林회장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지는 중흥기로 삼아야 한다. 동문들이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동창회에 더 깊은 애정을 보내주기 바란다. (李炯均는설위원)

느리나무광장

흑룡의 해, 2012년은 선거가 화두다. 총선을 보면 대선
의 윤곽도 보인다.

여권에선 朴槿惠비상대책위원장이 돋보인다. 궤멸직전의
당을 추슬러 총선까지 잘 치렀다. 위기관리 능력과 '선거의
여왕'임을 유감없이 확인했다. 차위원장은 역시 여권 주자
중 '不動의 常數'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은 다르다. "MB에
겐 SD와 崔時仲이 있었고, 대통령 盧武鉉은 安熙正을 '동업
자'라고 불렀다. DJ와 YS에선 權魯甲과 崔炯佑가 있었고,
DJP연합과 3당 합당까지 감행했다." 전문직업인으로 정상
에 오른 원로의 지적이다. 그는 "(차위원장은) 李會昌과 닮
았다"고 했다. '同業 리더십'이 부족한 탓인지, 눈도장 찍
는 사람들만 많은 게 둘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일핏 들으면 구시대 정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러
나 인터넷 시대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이를 확장한 선
거와 정치라는 함수관계의 본질이 변할까. 총선 때 상당 부
분 후보단일화를 이룬 범야권은 다국적군으로 움직였다.
반면 범여권은 분열됐고, 차위원장의 개인기만 현란했다.

여당은 '1인 체제', 야당은 '집단지체'로 선거를 치렀
다. '1인 체제'는 메시지의 분명한 전달과 실수를 줄이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과상 공세와 지원 유세의 측면에선 한
계가 있다. 여권의 약점이다.

야권에선 文在寅후보에게 눈길이 쏠린다. 범야권 연대의
균열을 막고 치열한 낙동강 전투를 거치며 선전했다. 그에
게도 약점은 있다. 盧武鉉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의리를
지킨 운명이 그를 이끈 동력이다. '盧武鉉의 불꽃'이 사그
라지면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신세다. 그러나 반사체인 달이 대권을 잡는 일은 없다. 정

一人政治와 輓章政治

崔英勳
(동아일보 부국장)
본보 논설위원



치인 文在寅의 태생적 한계다. 한 親盧 인사는 "더 이상 盧
武鉉을 파는 '輓章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文후보
가 자신의 정치자산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해품달'
을 넘어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金斗官지사는
文후보가 주저앉으면 급부상할 다크호스다. 야권 연대의
과괴력은 PK후보가 나설 때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安哲秀
원장의 出師는 오리무중이다. 그의 화법은 여전히 애매모
호하다. 그러나 그는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다. 일각
에선 그가 출마를 접고 누군가를 지지하면 승부는 끝이라고
장담한다. 이처럼 여권에 비해 야권이 드라마의 흥행을 성
공시킬 자원이 풍성하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술한 사건과 변수들이 대선판도를
요동치게 할 것이다. 외교안보 공약을 빼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포퓰리즘에선 여야가 다툰꼴이다. 그렇다면 승리의
여신은 '덧셈 정치'를 잘하고 '헛발질'은 적게 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덧셈을 잘 하려면 권한을 나누고 잘
위임하는 '分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도 맞다. 연말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여야가 시계추처
럼 정권을 교대할 가능성이 높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실
천할 품이 너른 지도자가 흑룡이 옮겨온 여의주를 낚아채
길 희망해 본다.

관악시단

깃발

吳世榮(국문61-65)
모교 명예교수·시인

칼바람이 불었다 하더라.
피바람이 몰아쳤다 하더라.
이 지상엔 온통 모진 바람, 하르르 꽃잎 지는데
그 꽃잎 짓밟고 높이 세운 장대 위에서
펄펄 날리는 깃발이여.
너는 그것을 하늘이라 믿지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것이 하늘.
향할 방향도,
정할 자리도 없이
마파람 불면 마파람,
샛파람 불면 샛파람의 위세로 한 세상
호령하구나.
그러나 미구(未久)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네 또한 광풍(狂風)에 갈갈이 찢겨 매달릴지니
나는 장대 끝에서 나플때는 깃발이 되기보다는
지상에 떨어져 한 줌 흙으로 삭는
꽃잎이 되리라.

동문칼럼

지난 2월 중순 아프리카 최빈국 부르키나 파소
(Burkina Faso 이 나라 이름을 들어 본 독자는 하
나도 없을 것이다)에서 '한국의 날'이 열렸다. 아
프리카 빈곤탈출에 꼭 필요한 지식 정보인 한국교
육 발전 경험을 해당 전문가로부터 듣고 아프리카
교육가와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였다. 개발협력 분
야에서는 이런 활동을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라고 한
다. 필자와 동료들이 5년 전에
조직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국경없는 교육가
회(Educators without Borders)
와 교과부가 함께 마련한 특별한
행사였다. 어느 대륙에서도 특정
국가를 기념하는 날을 정해 행사
를 한 경우는 없었다.

전 세계에 잘 알려진 국경없는
의사회를 벤치마킹해 조직한 것
이 EWB이다. 프랑스에서 시작
한 의사 단체는 전 세계에서 전쟁
과 재해 재난 후 즉각 현장에 나
가 치유활동을 하고 있다. 국경
없는 교육가회는 교육 강국인 한
국에서 출
발해 전 세
계로 나가
교육을 통
한 빈곤퇴



金基莢
(교육67-72)
모교 교육학과 교수
국경없는 교육가회 공동 대표

치를 전담하는 국제기구로 성장할 것이다. 지난 5
년간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르키나 파소에서 빈곤퇴
치에 주력했다. 주민 중에도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인 문맹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문맹퇴치, HIV/
AIDS예방교육, 가계소득증대 기술훈련, 소액융자
와 장학금 지급을 통합해 시행했다. 국제개발협력의
꿈과 이상인 '물고기 대신 물고기 잡는 기술 훈련'에
철저했다. 활동 중에 우리가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깊다는 것이다. 과
거 미국의 할리우드 상업주의 영화(예, 타잔)가 잘
못 소개한 야만스럽고 미개한 대륙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참 아프리카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기구는 수년 전부터 아프리카 발

전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게 '한국
처럼 하면 발전한다'는 간결 명료한 메시지를 마치
전도라도 하듯 전하고 있다. 이런 우정 어린 설득
을 경청하고 또 나아가 그것을 갈급하는 아프리카
교육 지도자 수가 점차 늘고 있다. 국제기구 전문
가는 한국이 그랬던 바와 같이, 먼저 수준 높은 교
육과 훈련을 실현해 이를 동력으로 삼아 발전을 이
룩하라고 권하고 있다. 원조를 주는 나라나 받는
나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빈국과
개도국의 경제 도약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한

국의 교육발전 경험이라는 것이
다. 식민 수탈, 동족 상잔의 내
전, 반복된 장기 군사독재 탓에
생긴 극단의 빈곤과 억압을 이기
고 도약의 역사를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다. 공교육과 비형식 교육
의 발전 덕에 탈식민지화, 공업
화 그리고 민주화 3대 난제를 해
결했다. 세계사 초유의 사건이
다. 세 가지 중 하나도 못 하고
가라앉은 나라는 부지기수이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경험은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문화유산은 세계문화 유산
이상으로 가치 있다고 하여 그 지
식을 공유해 아프리카 최빈국을

한국과 같
은 나라로
만들어 보
자는 새로
운 한류가

새 한류 이끄는 국경없는 교육가회

가장 각광을 받는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이다.

한국의 날 행사에서 아시아 팽호 한국과 아프리
카 사자가 만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제 도약을 지
속하자는 결의를 천명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려
는 원조 자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한국의 발전경험이
다. 또 이런 지식을 온 몸에 익히고 있는 전문가의
경륜이다. 이 경륜을 활용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빈곤퇴치에 나서는 것이 새 한류의 목적지이다.
EWB는 조만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
하다가 은퇴한 서울대 동문과 함께 아프리카 현장
에 나가 일할 것이다. 동문의 봉사와 참여로 아프
리카의 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많
은 참여를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邊榮顯, 玄智愛, 朴鉉載

林光洙회장 수락 인사 <요지>

1백17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모교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서울대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모교를 지원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으로 동참하고 협력해주신다면 총동창회는 더욱 더 명예로운 동창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회사 <요지>

저는 지난 2002년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동창회 참여율을 높이고,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동문 언론인들을 논설위원으로 모시고 매월 수준 높은 동창회보를 발간함으로써 동문간 교류를 공고히 하고 네트워크 향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하며 되찾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널리

홍보하고, 모교의 요청도 있어 관악캠퍼스 내에 역사기념관을 건립하고자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와 준비위원회를 지난 2월에 발족시켰습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으로 우리 33만 서울대인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선다면 우리 모교는 머지않아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동창회는 ‘참여와 협력, 그리고 영광’이라는 동창회의 지표를 되새기며 서울대인 모두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총회 행사장을 가득 메운 1천여 동문들이 회의 과정을 지켜보며 동창회 임원 개선을 위해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장학사업 확대·모교 발전 위한 지원 확충”

지식인으로서 약자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도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정기총회 겸 제1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冠岳大賞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도화엔지니어링 郭永馥(토목공학56-60)회장, 협력부문에 원일전선판매 鄭啓泳(상학61-66)회장, 영광부문에 한국은행 李成太(경영64-68)고문, 해외부문에 미국 브라운대 金景碩(기계공학70-74)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林光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02년 취임 이후 서울대인 모두가 단결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학사업의 확대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모교의 절실한 요망과 동문들의 염원을 수렴해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학발당과 관련해 “지난 2007년 도시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를 시작한 장학발당은 동창회 보유재산 1천억원의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됐다”며 “서울 시내 사무실 공실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의 임대 성공적으로 완료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임대수입 40억원이 달성돼 모교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요지 참조>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이념적인



동창회 2011년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모습

양극화,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인으로서 우리 동문들이 약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 발전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가는 데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서 “후보자 모두 뛰어난 분들이라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정하고 심도 있는 난상토론 끝에 영광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부 안건 심의에서는 본회 2011년도 결산을 설명한 후, 朴英俊감사의 감사보고를 거쳐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동창회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제24대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그동안의 관례상 회장 선출은 총회 전 상임이사회에서 의견을 통일해 총회에서 전체 동문의 합의로 통과시키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본회 李相赫(행정54-58 고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부회장이

총회에 앞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에 관해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고 “장학발당 건립과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의 성과를 낸 林光洙회장의 업적이 대단히 크며, 올해 모교가 법인으로 출범했는데 동창회가 모교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林光洙회장의 연임을 제안한다”며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총회에 제안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林光洙회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모교 金泓鍾(수학74-78)교무처장과 교보생명 중앙GFP지점 金漢奎(산업공

학74-78)팀장은 “동창회 발전을 위한 林光洙회장의 업적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연임보다는 새 회장을 멘토링하는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회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N대표)논설위원은 “동창회와 모교와 후임들을 위해 林光洙회장에게 이번까지 동창회장 겸 멘토로서 연임하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총회 의사 진행을 맡은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순기능적으로 정착된 관행은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미풍”이라고 전제한 다음 회장 선임의 관례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문의 제안을 존중해 표결을 단행했으나 표결결과 연임 반대 거수는 3~4명에 그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에 따라 林光洙회장이 제24대 회장으로 재선출됐으며, 朴英俊·朱成민감사도 재선임됐다. 부회장단 구성은 林光洙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林光洙회장은 수락인사에서 “그동안 동창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동문님들의 엄중한 당부 말씀으로 알고 열정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찬에 앞서 본회 權彞赫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우리 다같이 손을 잡고 씩씩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본회 李吉女부회장은 “정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동문들이 대한민국의 동량이 되고 있다”며 ‘서울대 최고야!’를 건배구호로 힘차게 외쳤다.

이어 축하공연으로 명지대학교 鄭世煜(법학56-60)명예교수가 ‘Come Prima’, ‘Granada’를 열창했으며,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Nessun Dorma’, ‘Oh, Happy day’, ‘O Sole Mio’ 등을 불렀다. 이들은 즉석에서 합동공연으로 ‘Drinking Song’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智>



鄭世煜동문(사진 中)과 모교 성악과 재학생 중창단의 축하공연

제14회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도화엔지니어링 郭永駟회장

▲1956년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1960년 졸업했다. 건설부 토목기정 및 외무서기관, 한국토목학회 부회장, 한국수도협회 회장, 환경하림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을 맡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을 한국증권거래소(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토목설계 분야 제1위의 회사로 성

장시킨 郭동문은 국내 토목설계 분야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과 국가 산업 발전에도 큰 공로를 세웠다.

또한 기업인으로서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많은 기술인들을 양성했으며, 장학사업과 모교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 모교 건설환경융합연구소 설립기



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본회 부회장,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창회 부회장으로 봉사하며 동문간 친목과 결속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0년 대한건설진흥회 제1회 자랑스러운 회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郭永駟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모교를 졸업한 지 어느새 50년이 넘었다”며 “서울대인이라는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며 기업인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보탬

이 되고자 노력했는데 이렇게 영광된 상을 주셔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는 제게 원대한 꿈을 심어주고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길러준 토양과 같다”며 “모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은 삶의 다양한 길목에서 방향을 제시해줬고, 힘든 고비마다 큰 용기와 지혜를 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서울대인으로서 모교의 전통과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협력부문 원일전선판매 鄭啓泳회장

▲1961년 상과대학 상학과에 입학해 1966년 졸업했다. 모교 졸업 후 1966년 금성전선에 입사해 1986년까지 근무했으며 이후 삼우특수금속 이사, 세일산업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1990년에는 원일전기상사를 설립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원일전선판매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정도경영을 통

해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며 국세청장 모범 성실납세자 표창 및 대통령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로 활동하며 동문간 친목 강화와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설립된 특지장학회를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모교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鄭啓泳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무척 송구스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영광된 자리를 마련해주신 林光洙회장님 이하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졸업 후 대기업과 계열사에서 경력을 쌓고, 관련된 중소기업을 창업해 지금까지 46년간 외길을 걸어왔다”며 “조상님으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어려운 학생과 국가와

사회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학생을 돕겠다는 신념으로 10여년 전부터 장학사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대학등록금이 이슈가 되는 현실에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느낀다”며 “모교에서 훌륭한 교수님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돼 노벨상도 타고 우리나라 선진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 동안 미력이나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부문 한국은행 李成太고문

▲1964년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해 1968년 졸업했으며, 1988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졸업 후 1968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자금부 수석부부장, 기획부장, 조사국장, 조사담당 부총재보, 부총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재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은행에서 고문

을 맡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로 재임할 당시 강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통화정책을 운영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적정 수준 달성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2010년 상대동창회에서 수여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李成太고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모교 입학이 인생에 큰 방향 전환을 가져왔고,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 같다”며 “한국은행에서 42년 동안 근무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온도가 너무 낮

으면 얼어붙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끓어서 넘쳐 경제에 낭비가 많이 생긴다”며 “복지 문제에 접근하는 데도 적정 온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앞으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문들이 복지 문제도 주도해서 좋은 방법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부문 미국 브라운대 金景碩교수

▲1970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1974년 졸업했다. 이후 모교에서 석사학위,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공대 자문위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 KIMM(한국기계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브라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나노역학 연구를 개척해 오늘날 마이크로 나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

1999년에는 나노 세계에서 일반적인 마찰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단점점 나노규모의 접점은 전위이론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내 나노역학 분야의 이론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촉방변위간섭계 등 여러 가지 실험기구를 발명해 실험 연구 분야 발전에도 이바지

했다.

최근에는 모교 공대, KIST, KIMM 등 국내 기계공학·물리학자 및 연구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며 국내 나노역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호암상을 수상한 바 있다.

▲金景碩교수는 수상소감(e메일)을 통해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林光洙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모교 교수님과 선배님, 학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아울러 “제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것은 이제 모교가 새로운 도약의 시기에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학문의 전당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미력하나마 많은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회 상임이사회·관악회 이사회

동창회 예산·관악회 결산 승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본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6차 상임이사회 및 제113차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를 열고 동창회 예산과 관악회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산 6~7면 하단 참조〉

이날 회의에서 2012년 총동창회 예산과 2011년 관악회 결산을 승인했으며, 회칙 제8조 제2항(당연직이 아닌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에 따라 추천된 7전8백명을 제24대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제24대 회장과 감사 추대에 대해 협의한 결과 참석자 대표로 劉鐘海부회장이 “장학빌딩 건립으로 동창회 보유재산이 1천억원이 됐고, 법인으로 출발한 모교가 정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동창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므로 林光洙회장을 제24대 회장에 추대한다”고 말했으며 만장일치로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해 회비 10억9천6백만원을 포함해 총 18억9천1백여 만원의 수입을 올려 5전8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2011년 관악회의 당기순이익은 장학빌딩 기금전입에 힘입어 31억8천만원을 달성했다.

시드니지부동창회

임시총회서 尹光弘회장 선출



시드니지부동창회(회장 鄭樂興)는 최근 호주 시드니 벨필드에 있는 서울회관에서 신년교례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제17대 회장에 尹光弘(행대원71-73)동문을 선출했으며, 李澤昊(수의학83-87)부회장, 鄭樂興(산업공학73-77)감사, 임응석(외교94-01)총무를 임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春澤(역사교육64-68)·承源弘(중문66-74)고문을 비롯해 지부 창립 41주년을 맞아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젊은 동문들과 동문 가족이 참여해 친목을 도모하며 성황을 이뤘다.

한편 본회에서 행사를 위해 동창회보와 포켓용 다이어리를 지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남가주지부동창회

徐致源회장 선임

남가주지부동창회(회장 韓鍾喆)는 최근 Norwalk Double Tree Hotel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徐致源(공업교육69-74)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미주동창회 金殷宗회장은 축하사에서 “오늘과 같은 남가주동창회가 있기까지는 모든 동문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전통을 이어가



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徐致源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배들 품 안에서 무척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섰다”며 “좀더 재미있고 신명나며 행복을 느끼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석부회장에 金相燦(지질과학65-72)동문을 선임하고, 韓鍾喆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창원지부동창회

李憲周회장 취임

창원지부동창회(회장 尹德重)는 최근 창원시내 한정식당에서 정기모임 및 이사회를 갖고 새 회장에 李憲周(응용물리66-70 한국대양유전 대표)동문을 선출했다.

한편 임원 개선을 통해 경남대 공대 기계자동화공학부 徐南圭(기계공학69-76)교수를 총무에 선임했으며, 金炯駟(정치54-58)·鄭宗煥(의학56-62)·趙星浩(치의학62-68)·韓光洙(치의학62-69)·金漢旻(치의학63-69)·禹碩根(기계공학68-72)·金鳳煥(치의학72-78)·李慶宣(전기공학84-88)·姜奇秀(수의학84-91)동문을 이사로 임명했다.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해외부문 포함 후보 17명 심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7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국회실에서 관악대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林光洙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尹勤煥·李世中·金讚淑·李炯均·朴英俊·金一燮·辛鉉雄·胡文赫·李鍾燮·

安泰植·南益鉉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孫一根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제14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도화엔지니어링 郭永馱(토목공학56-60)회장, 협력부문에 원일전선판매 鄭啓泳(상학61-66)회장, 영공부문에 한국은행 李成太(경영64-68)고문, 해외부문에 미국 브라운대 金景碩(기계공학70-74)교수를 선정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4명(운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치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해 17명의 동문이 대상 후보에 올라 장시간의 논의 끝에 수상자가 결정됐다. 해외부문의 경우 3년 주기로 시상하고 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신임 동문 기관장 환영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3월 5일 대전시내 음식점 三井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기관장 축하연을 개최했다.

吳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후 崔炳德(법학72-76)대전고등법원장, 金鍾伯(법학73-77)특허법원장, 鄭相喆(사회78졸)충남대 총장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榮)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韓雲晟作



석류(Pomegranate), 130.3×130.3cm, Oil on Canvas, 2002

〈작가약력〉

- ▲1965~1970 모교 회화와 졸업
- ▲1975 美템플대 석사학위
-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 ▲美캘리포니아주립대 파견교수
-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참가
- ▲동아미술제 대상 (1980)
- ▲서울국제판화비엔나레 대상 (1981)
- ▲現서양화가

환자와 정형외과 의사

환자가 정형외과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손이 붓대를 들고 나면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 신기하네. 전 수술 전엔 피아노를 못 쳤거든요.”

사장의 유머

사장이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들은 유머를 얘기했다. 그러자 한 여직원만 빼고 모두가 재미있다고 크게 웃었다.
여직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사장은 그 여직원에게 물었다.
“자넌 유머 감각도 없나?”

그러자 여직원이 하는 말.
“전 안 웃어도 돼요. 이번 금요일에 회사 그만두거든요.”

정상인과 비정상인

정신병원 의사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하느냐고 물었다.
의사 왈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환자에게 슬가락과 첵 그리고 바가지로 준 다음 욕조를 비우라고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면 슬가락이나 첵보다는 큰 바가지를 선택하겠군요?”
그러자 의사 왈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 마개를 제거합니다.”
(독자재보 촬영)



의대동창회

金東集동문 등 3명 春대상 수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13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權彝赫·姜信浩고문, 李吉女부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 丁憲源병원장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朴容晔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5억5천만원 정도

의 발전기금이 모였다”며 “3년 전 2명에게 지급된 후배사랑 장학금이 금년에는 12명에게 지급되며, 해외 연수비 지원, 의학도서 기증 등도 대폭 증가됐다”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함춘대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가톨릭대 金東集(의학58졸) 명예교수, 청송진보병원 趙斗英(의학55-61)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趙昇烈(의학62-68)회장을



朴容晔회장·수상자 金東集동문 부부·趙斗英동문 부부·趙昇烈동문 부부

선정해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이밖에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25회·35회·45회 동기회에 공로패, 간행위원회 안병정 자문위원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

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2011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으며, 올해 사업계획안과 11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간호대동창회

장학금 수여·신입회원 환영식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洪京子)는 지난 3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장학금 수여식·신입회원 환영식을 개최했다.

洪京子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교가 법인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올해에는 간호대학 동문들의 굳건한 결속과 적극적인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동창회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서울대 간호대학 학부생임을 자랑스럽게 생

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약속했다.

洪회장은 동창회장상 포상식에서 최우수 졸업생인 성수미양에게 상장과 순금배지를 수여했으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재학생 14명에게 1천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동창회는 2011년 결산을 심의하고 올해 1천9백만원의 장학금 지급안을 포함한 교육연구재단 예산 8억6천1백만원을 책정했다.

교대원동창회

崔鴻圭회장 선임

교육대학원동창회(회장 咸鍾漢)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기 3년의 신입회장에 중앙대 崔鴻圭(교대원65-67)명예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崔회장은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해밍웨이학회, 한국미국문학회, 국제펜재단 한국문우회, 한국농민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며 한국번역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농생대동창회

장학금 1억여원 전달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3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교수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창회 장학재단인 상록문화재단과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일성특지장학회를 통해 재학생 48명과 고교생 12명 등 총 60명에게 1억1천5백26만9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鄭潤煥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들에게 장학금 기부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이후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수원 서문별을 기억하며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모교 농생대 李鶴來학장은 장학생들을 격려하며 “장학금을 주신 선배님들처럼 여기 있는 장학생들도 사회 기여도 많이 하고, 후배들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여식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두레미팅에서 오찬을 즐겼으며, 장학금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입학진로정보실에 모여 모교 탐방 안내를 받았다. <載>

4·5월 행사 캘린더

- 4월 18일(수) 오전 7시30분

• AI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르네상스호텔

(문의 : 02-878-9467)
- 4월 28일(토) 오전 8시

• ACPMP동창회 등산대회

계룡산

(문의 : 02-882-2623)
- 4월 28일(토) 오전 9시

• 공대동창회 춘계등반대회

관악산

(문의 : 02-880-7030)
- 5월 5일(토) 오전 10시

• 상대동창회 산행대회

관악캠퍼스 버들골

(문의 : 02-761-2278)
- 5월 5일(토) ~6일(일)

• 치대동창회 골프대회

제주도 테디밸리

(문의 : 02-742-7082)
- 5월 11일(금) 오후 7시30분

• AMP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문의 : 02-880-6912)
- 5월 12일(토) 오전 10시

• 농생대동창회 상록의 날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문의 : 02-882-8630)

2011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3,925,041,494	부채	40,514,143
I. 유동자산	3,923,575,585	I. 유동부채	26,589,000
(1) 당좌자산	3,923,575,585	1.미지급금	18,865,190
1.현금	1,926,850	2.예수금	7,723,810
2.보통예금	3,776,461,174	II. 비유동부채	13,925,143
3.미수수익	68,441,091	1.퇴직급여충당금	13,925,143
4.미수금	56,000,000		
5.선납세금	20,746,470	자본	3,884,527,351
(2) 재고자산		I. 자본금	4,161,271
II. 비유동자산	1,465,909	1.기본금	4,161,271
(1)투자자산	305,750	II. 자본잉여금	
1.지급보증금	305,750	III. 자본조정	
(2) 유형자산	1,160,159	IV. 이익잉여금	3,880,366,080
1.비품	57,711,600	1.미처분이이익잉여금	3,880,366,080
감가상각누계액	(56,551,441)		
합 계	3,925,041,494	합 계	3,925,041,494

운 영 성 과 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운영수익	1,891,634,973	8.세금과공과금	7,464,110
1.광고수입	441,848,926	9.감가상각비	1,437,521
2.수입이자	155,788,716	10.보험료	4,247,570
3.찬조금수입	183,116,000	11.회의비	150,616,087
4.회원회비	1,096,993,257	12.지급수수료	10,286,430
5.잡수입	13,888,074	13.잡비	3,531,800
II. 운영비용	1,832,864,174	14.전산화비용	14,783,320
1.간행물비	794,600,797	15.친목사업비	178,395,980
2.직원급여	53,749,000	16.지원사업비	65,499,246
3.상여금	14,763,500	17.조직강화비	434,790,593
4.제수당	10,279,630	18.사무비	13,103,008
5.퇴직급여	31,207,382	19.예치금기금전출	33,060,000
6.복리후생비	7,696,140	III. 총운영차익	58,770,799
7.여비교통비	3,352,060	IV. 당기순운영차익	58,770,799

위와 같이 공고함
2012.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음대동창회

신임 회장에 申秀貞동문 선출



徐桂淑회장 (사진 中)과 장학생들

음악대학동창회(회장 徐桂淑)는 지난 3월 12일 서울 뉴서울호텔에

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徐桂淑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장학금 수여식, 신입회원 환영식 등의 1부와 공연, 만찬, 경품추첨 등의 2부로 나뉘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

해 신임 회장에 申秀貞(기약59-63 모교 기약과 명예교수)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인터뷰 11면 참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모교 재학생 정아영(성악4년), 이현지(작곡4년), 곽지향(기약3년), 한에진(기약4년), 이수옥(국악3년) 양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68학번 동기회(회장 金光熙)가 1천6백여 만원을 모아 동창회 기금으로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축하공연으로 모교 음대 남성중창단이 ‘추배의 노래’, ‘경복궁타령’ 등을 불러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대동창회

청관대상에 李柄好·申滢植동문



李柄好동문 부부·卞柱仙회장·申滢植동문 부부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 여러 동문들이 도와준 덕분에 동

는 지난 3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회 청관대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卞柱仙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의 발전은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동안

창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청관대상 시상식에서 사도상 부문에 세현고교 李柄好(영어교육 70-74)교장, 학술상 부문에 서울 시사편찬위원회 申滢植(역사교육 57-61)위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순금메달을 받았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卞柱仙회장을 재선출했으며, 감사에 金英吉(교육62-66)·李喜子(가정교육60-64)동문을 재선임했다.

FIP동창회

姜英植회장 추대

미래융합기술과정동창회(회장 咸光鮮)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에 열린 정기총회 겸 송년회에서 위임받은 임원 개선을 의결했다.

이날 신임 회장에 엘림시스 姜英植(FIP 4기)대표를 추대했으며, 수석부회장에 앤비전 金德杓(FIP 7기)대표를 선임했다. 한편 문재웅(FIP 5기 제이컴정보 대표)사무총장은 연임됐다. 〈智〉

91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습관 때문이다.

다. 젊은 교수 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한국방송통신대 영문



鄭 漢 澤

과에 입학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매주 금요일에는 학교에 직접 나가 수업을 듣는다. 규칙적인 생활은 노후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15년째 새벽 3시

● 공부하는 규칙적인 생활

능하다는 생각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욕심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에 일어나 꾸준히 간단한 체조와 헬스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심리46-49) 前모교 심리학과 교수



아침마다 발목, 무릎, 허벅지, 손목, 어깨 등 관절을 좌우로 10번씩 돌리며 스트레칭을 한 후 일어난다. 되도록 매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헬스장에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한다.

때는 육류를 잘 먹지 않으며, 야채와 두부 등을 많이 먹는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비타



南 惠 祐

민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지난해에는 米壽 기념으로 서집을 출간하고 서예전을 개최했다. 특강이나 기고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 매일 관절 운동하며 기상

한 번 걸을 때마다 30분 이상을 걷는다. 근육운동으로는 아령을 들고 15회 1세트를 기준으로 매일 3세트씩 운동한다. 심장이 좋지 않아 식사를 할

있지만 취미 삼아 틈만 있으면 서예를 한다.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대학원 52-56)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2011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45,808,219,505	부채	2,923,808,763
I. 유동자산	11,071,923,346	I. 유동부채	101,092,708
(1) 당좌자산	11,071,923,346	1.미지급금	16,022,06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736,602,282	2.예수금	5,028,150
2.미수익	311,210,774	3.부가세예수금	80,042,490
3.미수금	1,419,030	II. 비유동부채	2,822,716,055
4.선납세금	22,691,260	1.퇴직급여충당금	50,000,055
II. 비유동자산	34,736,296,159	2.임대보증금	2,771,216,000
(1) 투자자산	2,388,711,500	3.기타보증금	1,500,000
1. 장기투자자산	2,388,711,500	자본	42,884,410,742
(2) 유형자산	32,347,584,659	I. 출연금	33,577,370,410
1.토지	624,290,410	1.출연금	33,577,370,410
2.건물	22,848,241,294	II. 자본잉여금	
감가상각누계액	(333,203,518)	III. 자본조정	
3.구축물	4,039,127,510	IV. 이익잉여금	9,307,040,332
감가상각누계액	(235,615,770)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2,415,214,388
4.기계장치	5,892,474,484	2.미처분이익잉여금	6,891,825,944
감가상각누계액	(890,254,686)		
5.차량운반구	36,915,470		
감가상각누계액	(36,914,470)		
6.비품	159,400,000		
감가상각누계액	(59,855,216)		
7.시설장치	355,156,364		
감가상각누계액	(52,177,213)		
합 계	45,808,219,505	합 계	45,808,219,505

운 영 성 과 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운영수익	7,443,318,953	8.세금과공과금	107,744,776
1.이자수익	445,933,037	9.감가상각비	1,571,106,403
2.지원금	3,449,952,410	10.보혐료	11,888,550
3.임대수익	3,384,048,605	11.차량유지비	6,345,577
4.전기요류수정이익	150,000,000	12.회의비	9,650,152
5.잡이익	13,384,901	13.소모품비	189,193,099
II. 운영비용	4,259,316,540	14.지급수수료	224,841,300
1.급여	168,479,570	15.전물관리비	419,657,580
2.퇴직급여	15,741,302	16.장학사업비	1,196,093,508
3.복리후생비	4,849,900	17.기타목적사업비	45,000,000
4.여비교통비	9,700,000	18.잡손실	913,223
5.통신비	4,755,587		
6.수도광열비	95,160,793	III. 총운영차익	3,184,002,413
7.전력비	178,195,220	IV. 당기순운영차익	3,184,002,413

위와 같이 공고함
2012. 3.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의대 36회 동기회

모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의과대학 36회 동기회(회장 李正烈)는 지난 3월 6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가전홀에서 졸업 30주년 기념식 및 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모교 발전과 후배 장학금, 동문 연수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李正烈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36회 동기회는 힘을 모아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대동창회 차容眩회장,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을 비롯해 36회 동기회 40여 명이 참석했다. 동기회 졸업생은 총 1백 60명이다.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관악산서 춘계등반 모임 가져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林鍾贊)는 지난 3월 17일 동문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산에서 춘계등반 모임을 가졌다.

전날 내린 비와 새벽에 끼인 안개로 순조로운 등반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나, 참석자들의 환한 표정만큼이나 밝고 따뜻한 날씨로 상쾌한 등반을 즐겼다.

원로 회원인 李鼎鉦(화학공학 53-57)동문을 포함해 張盛華(화학공학 86-90)동문까지 여러 기수의 동문들이 참여해 아늑한 날씨 속에서 봄기운을 만끽했다. 상기된 얼굴로 등반을 마치고 막걸리와 함께 삼겹살로 오랜만에 동문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다.

춘계등반 모임은 화공산우회(회장 黃運顯)의 협조아래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대학원동창회

대학원생에 장학금 수여

대학원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3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대학원장실에서 2012년 제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文漢회장, 申南植사무국장, 모교 차明珍교육부총장이 참석했으며, 모교 재학생 감창희(경영학 석사과정)·황진연(재료공학 석사과정)군에게 각각 4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승클럽

白勝基회장 선임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3월 9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정기총회 및 제23차 동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白勝基(물리65-69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동문을 선출했다.

이어 201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분기별로 포럼을 비롯해 바둑, 등산, 영화 등 동호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 동승포럼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鄭求勳(사회사업65-70)사무총장이 연사로 초빙돼 ‘고령사회와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강연했다.



임학동문회

玄信圭박사 탄신 1백주년 기념식

임학동문회(회장 權五俊)는 지난 2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E6홀에서 한국산림과학원, 한국임학회와 공동주최로 香山 玄信圭(수원고농30-33)박사 탄신 1백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기념식은 인사말과 업적 소개, 사진전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순서에서는 ‘玄信圭박사 업적의 재조명과 후대의 과제’, ‘산림자원화를 위한 임목육종의 동향과 전략’, ‘녹화성공과 미래를 위한 복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2년간 준비해 온 權회장은 “香山선생님은 임목육종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오랜 연구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우리나라 산림육성에 헌신해오셨다”며 “선생님의 뜻을 다시 되새겨 우리 임업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다.

GLP동창회

黃樹寬교수 특강 펼쳐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李鍾大)는 지난 3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 강연으로 연세대 黃樹寬 前교수가 초빙돼 ‘8090 건강법’을 강의하며 재치있는 입담을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골프대회(6월), 등산대회(10월), 수첩 제작, 송년회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智)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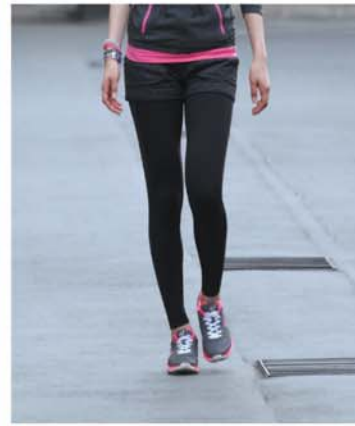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LS네트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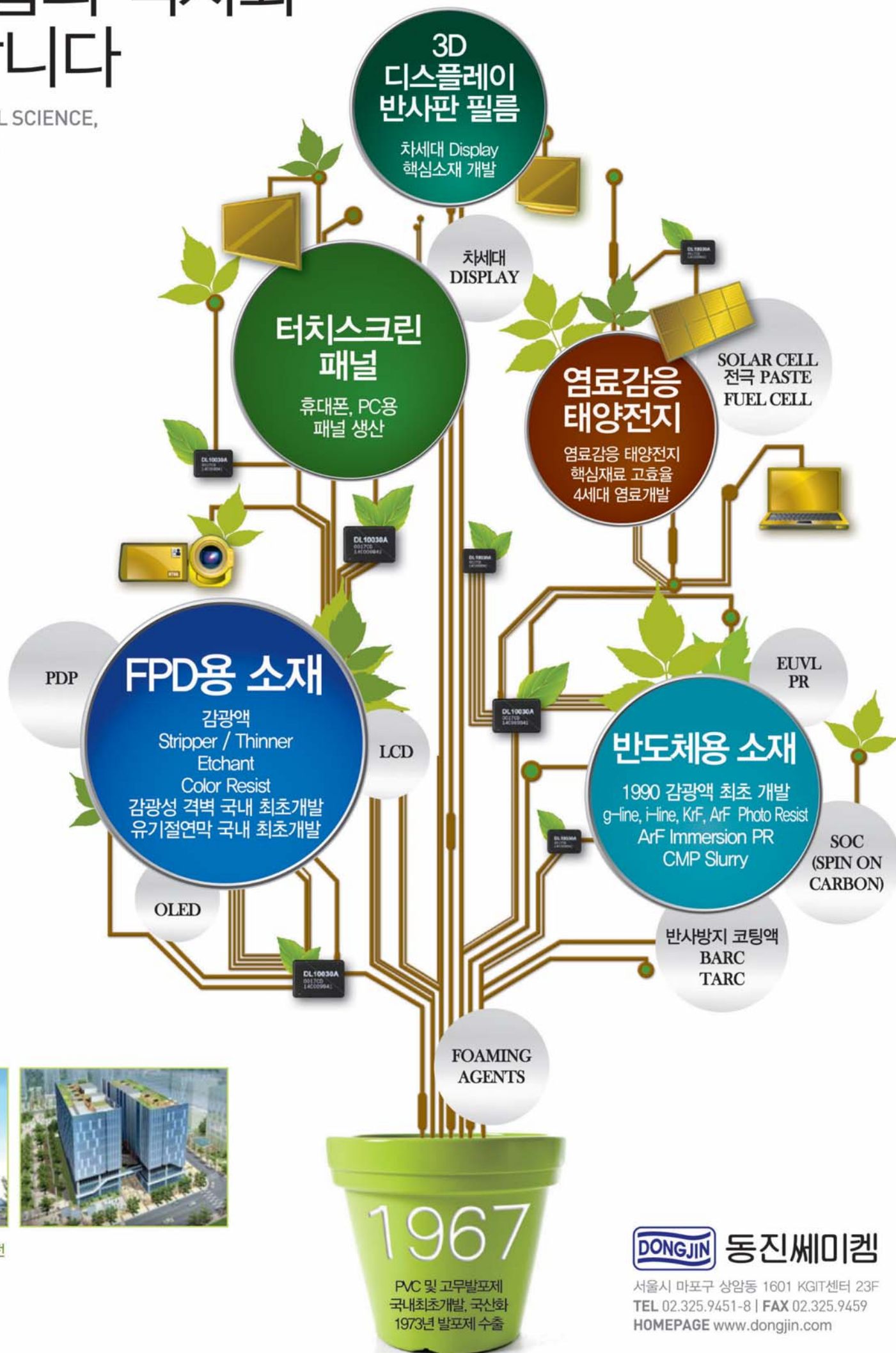


PROSPECS



동진세미켐의 소재기술은 전자산업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LEADER IN MATERIAL SCIENCE,
DONGJIN SEMICHEM



■ 판교 연구소 : 2012년 7월 이전

- 차세대 염료감응태양전지
- 고기능성 광학 필름
- 인쇄전자용 도전성 잉크
- 차세대 전자전달 유기소재

DONGJIN 동진세미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센터 23F
TEL 02.325.9451-8 | FAX 02.325.9459
HOMEPAGE www.dongjin.com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음악대학동창회 申秀貞회장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음악대학동창회는 지난 3월 12일 새 회장에 申秀貞(기악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모교와 함께 발전하는 동창회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신임 申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걱정도 됩니다. 동창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徐桂淑회장님의 굉장한 열정과 저력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동창회가 최근에 들어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다른 개인 업무를 해결하느라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회장에 선출되고 나니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며 모교를 위해서 동창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려 합니다. 학생들의 연주활동, 국제콩쿠르 참가 등을 위한 기금 모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총동창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제 학창시절을 돌아보더라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장학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음악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라서 그 사실을 더욱 강조하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약학대학동창회 千文宇회장
(동국대 약대 학장·석좌교수)

없었습니다.”

-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벌써 지난 총회 후 제 동기들이 기금을 약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 신분이라서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에 비해 돈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지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의무를 주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모금 활동을 하다보면 동창회도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 기별·지부 조직은 잘 돼 있나요.

“기별이나 지부 모임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뉴욕지부는 동문들은 미주 평의원회도 참석하고, 정기모임도 많아서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압니다. 기회가 되면 어느 지역이든 전 세계적으로 널

“동문 결속·모교 재정지원에 최선”

- 음대 학장으로 재직하셨던 만큼 모교와의 연계 면에서 이점이 있을 듯한데.

“전임 회장님들 대부분은 모교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퇴임한 학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교의 배려로 사무실이 음악대학 안에 있다는 이점도 있어서, 모교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올해 역점사업은.

“모교의 모든 단과대학이 마찬가지로지만 모교 음대는 우리나라 음악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곳입니다. 동문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동창회는 재정적인 지원, 동문들의 결속 등을 통해 모교에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지속하

고 싶어요.”

- 음대 동문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수도승과 같습니다. 홀로 부단히 기량을 닦으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문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더 모교에 대한 사랑을, 또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신임 申회장은 194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예고를 졸업했다. 모교 음대 기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모교 음대 부교수, 가천대 음대 학장 등을 거쳐 2005년 모교 음대 첫 여성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예술상’, ‘옥관문화훈장’, ‘독일정부일등공로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위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載)

“모교와 밀착된 동창회 만들겠다”

게 동국대에서 교육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죠. 동국대 일산캠퍼스 병원 근처에 약학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저는 주로 특강과 새로 조성되는 센터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더불어 동창회장까지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동문들의 모교 사랑을 향한 의지를 모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 교수 출신 약대동창회장이신데.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장님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죠. 저는 동창회 임원도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되면 모임에 참석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동문들에게서 제가 모교에서 학장도 하고, 오랫동안 근무해서 학교 사정을 잘 아니까 살림을 잘 꾸려봐라,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세계 최고의 약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리 포진해있는 동문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6천여 명의 회원과 5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창회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 모교를 더 힘차게 지원할 수 있는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협력해서 학교와 밀착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화목한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교 약학과를 졸업한 千회장은 1968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일본 오사카대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79년 모교에 부임해 약학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약대 학장·약대 약학연구소장·약학교육연구위원장·종합약학연구소장, 대한약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榮)



30
고려시대와 함께한 30년
대한민국 대명리조트

1,200만원대
회원권출시!

골프, 스키, 오션월드, 콘도를 회원권 하나로!
대명리조트 실속형 회원권 특별분양
전국 12개 직영 리조트 및 체인콘도 이용가능

● 기명 신규회원 특별혜택

※ 하프패밀리 연간 객실 사용일수 : 20박(15박+5박) / 부대시설 사용회수 : 시설별 연 15회

GOLF	SKI	OCEAN WORLD	CONDO
설악/비발디파크대중골프장 주말 50%, 주중 무료	리프트 및 4가지 부대시설 주말, 주중 무료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비수기주중 상수기주중-주말/비수기주말 무료 50%	객실 회원요금의 주말, 주중 50%

※ 특별혜택기간 1년 / 신규회원 특별혜택 종료 후 부대시설 10%~40% 할인 혜택 적용



대명리조트/비발디파크



대명리조트/설악골프장



대명리조트/단양



대명리조트/양평



대명리조트/경주



대명리조트/빈산



대명리조트/제주



MVL호텔(여수)(' 12,030㎡)



대명리조트/거제(' 13,060㎡)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우리은행 1005-900-997807 | 예금주 : (주)대명레저산업 | ※ 상기계좌로 입금된 입회금만 유효합니다.

가입문의 : 팀장 고 주

● 법인상당환영 ● 야간 및 휴일에도 상담합니다.

02-2222-7066

포스코건설에서 일하고 싶은 세가지 이유



믿음직 하니까!

2020년 Global Top 10위 건설사 목표
아시아지역 건설사중 최고의 신용등급 보유
폭발적인 성장세로 국내도급순위 4위 진입(11년)
입사선호기업 5년 연속 업계 1위 (인크루트 선정)
기업이미지 부문 5년 연속 최우수기업(한국대학신문 선정)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의 E&C부문 패밀리사 총괄 담당



글로벌 하니까!

미래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선도할 에너지사업본부 신설 ('06년)
친환경·물산업분야를 주도할 물환경사업본부 출범 ('10년)
에콰도르 플랜트 시공업체 SANTOS CMI사 인수합병 ('11년)
중동, 중남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10개 법인, 7개 지사 운영
포스코패밀리사와 시너지 제고 및 글로벌 네트워크확보



복지가 다양하니까!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마련
생활안정자금 (5천만원), 자녀학자금 지원
의료비 및 건강진단 지원
자기개발비, 문화레저 등 선택적 복리후생 제공



당신의 꿈이 크다면, 생각이 큰 회사를 만나야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세상의 생각을 키워가는 포스코건설이 당신의 큰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posco
포스코건설

화제의 동문

국립현대미술관 鄭馨民관장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과 세계 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동시에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미술관이다. 1969년 경복궁 소전시관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1986년 국제적 규모의 시설을 구비한 현재의 과천 부지로 신축 이전했으며 국제교류, 미술활동 보급 등을 통해 국립미술기관으로서 건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모교 동양화와 鄭馨民(응용미술70입)교수가 취임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여성이 이끌게 된 것은 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鄭관장은 “여성이라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 미술과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호재로 삼겠다”며 웃는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를 벤치마킹해 국립현대미술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鄭관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존 2관(과천관, 덕수궁관) 외에 추가로 2관(서울관, 청주관)을 건립 중이다. 경복궁 옆 옛 국



로, 프랑스·스위스 대사 등을 역임한 부친을 따라 유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英테이트 갤러리 벤치마킹

대학 진학 시점에 먼저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인접 분야인 응용미술을 선택했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유학 과정에서 창작자보다는 미술사가, 비평가로의 진로를 걷기 시작한 鄭관장은 1993년 컬럼비아대에서 미술사학 박사 학위를 얻은 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鄭관장은 자신의 2년 임기 동안 국립현대미술관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미술관으

국립현대미술관 사상 첫 여성 관장 “4개관 특성화로 글로벌 수준 격상”

군기무사령부부터 자리잡을 서울관은 내년 2월 준공 후 10월경 개관전을 열 계획이며, 한국예술의 중심 미술관으로서 연간 관람객 2백만명을 달성시킨다는 핵심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한 충북 청주시의 옛 KT&G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해 2014년 문을 열 청주관은 중부지역의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 1만8천여 점의 작품을 수장하는 ‘정부 미술은행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관·청주관 건립 추진

“신관인 서울관과 청주관이 문을 열게 되면 4개관(과천, 덕수궁, 서울, 청주)의 특화점이 정립됩니다. 각 분관의 역할은 저마다 접근성과 건축 구조, 시설에 따라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鄭관장의 구제안에 따르면 과천관은 ‘공원 속 미술관’의 콘셉트를 지니고 한국 현대미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고궁에 자리한 덕수궁관은 광복 이전의 미술품 상설전시와 기획전이 주로 열리는 근대미술 특화관 역할을, 청주관은 서울에 집중된 미술전시 분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첨병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관은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종합미술관, 미술계와 관객이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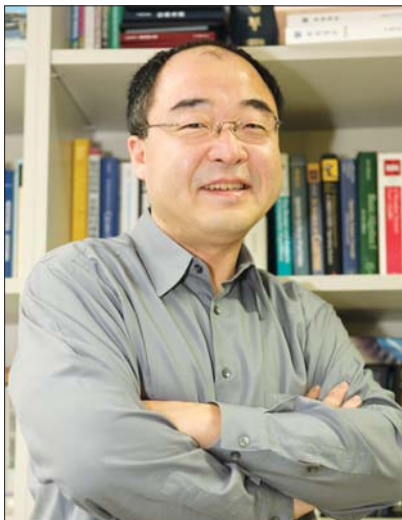
鄭관장은 외무부 차관, 모교 법대 교수를 지낸 鄭一永(정치47-51)동문의 차녀

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롤모델로 뉴욕의 ‘뉴욕현대미술관(MoMA)’, 파리의 ‘퐁피두(Pompidou)’,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와 같은 세계 유수의 현대미술관을 꼽는다. 특히 2000년 개관 이후 12년 만에 재정자립도를 20%에서 60%까지 끌어올린 테이트 갤러리는 鄭관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테이트 갤러리는 우리의 국립현대미술관처럼 4개의 분관으로 구성돼 있어요. 국립미술관이라 정부지원을 받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아 국립현대미술관이 법인화가 될 경우의 운영 면에 있어서 참고할 기관입니다. 마케팅, 운영 방법, 전략 등 전반적인 면에서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전시감독, 모교 미대 동양화과 교수, 모교 미술관장 등으로 재직하며 모교 미술학도를 위한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온 鄭관장은 후배들을 위한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고 건넸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미술실기 학생들은 실기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고, 미술작품을 직접 가서 보도록 하세요. 미술이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작업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며 전시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載)



모교 컴퓨터공학부 李在鎭교수

흥내내기에 급급해 한계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상청, 삼성 종합기술원 등 몇 군데에서 규모가 큰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은 우리 연구팀이 거의 유일하죠.”

사실 이번 슈퍼컴퓨터는 李동문 연구팀의 목적이 아니었다. 李동문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슈퍼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기 쉽도록 개발한 프로그래밍 모델인 ‘SnuCL’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선진국과 경쟁 발판 마련

“슈퍼컴퓨터 기술이 어려운 것은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쉽게 풀어나고 다변화되는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SnuCL’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성능을 인정받은 SnuCore는 대규모 작업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성하다보니 탄생하게

세계 최고속 슈퍼컴퓨터 ‘스누코어’ 개발 PC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활용

비교해도 12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그 때는 컴퓨터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렵게 구해서 갖고 놀았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웬만한 대학생 수준만큼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대학 와서 컴퓨터는 전공인 물리학의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할수록 전공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학교를 더 다니면서 컴퓨터 전산 관련 수업을 들었어요.”

슈퍼컴퓨터는 일기예보, 병을 진단하는 유전체 분석, 핵무기 실험 시뮬레이션 등 인류의 재난이나 국방과 같이 생명과 연관된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슈퍼컴퓨터 시장이 액수에 관계없이 매우 크다.

성능대비 가격 수준 최저

“10년 전 슈퍼컴퓨터가 지금 개인컴퓨터가 됐고 이제는 개인컴퓨터가 스마트폰이 됐는데 기술 이전의 주기가 3~5년 정도로 점점 짧아집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은 IT분야의 원천·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혁명인 스마트폰 기술이 발표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이폰 쇼크’라고 불렀다. 휴대폰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지만 슈퍼컴퓨터에 관련된 원천기술이 쌓인 것이 없어 스마트폰을

됐어요.”

이번 연구개발로 슈퍼컴퓨터 원천기술 개발에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슈퍼컴퓨터의 구축과 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되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nuCore는 단순히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입니다. 개발된 이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직접 하드웨어에 적용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컴퓨터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슈퍼컴퓨터 기술을 다루면서 가치가 높아졌어요.”

李동문 연구팀이 개발한 ‘SnuCore’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선정하는 기관인 ‘top500.org’에서 발표된 슈퍼컴퓨터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빠르고 전력효율 면에서도 세계 20위권 안에 든다.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과 같이 발전합니다. 의학, 생명·기계공학, 반도체 등 각 분야의 요구와 과제에 맞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함께 기술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연구비 문제로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슈퍼컴퓨터 원천기술에 대해 동문들과 사회 전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榮)

KOSDAQ 코스닥 상장 기업 디케이락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Fitting & Valve 제조 전문 기업
쉬지않고 달려온 준비된 기업



DK-LOK

Fittings & Valves



- (주)디케이락(서울) 02-2687-5515
- 대우유니온(서울) 02-2686-0491 부천)052-679-8833
- 승림특수금속(시화) 031-8041-7695 부산)051-832-1290
- 디케이록(화성) 031-224-3806
- 뉴엠텍(화성) 031-613-3642
- 우세기숏(수원) 031-273-0194/5
- 우진제어계측(영광) 062-676-0245
- GNC밸브(주) (경기) 031-706-3367
- 코록피팅상사(대전) 042-670-4650
- 세종엔지니어링(고리/월성) 052-269-8903
- 신화계전(울진) 054-783-0226
- 디케이테크(울산) 052-271-0027/8
- 대광넷플(부산) 051-319-3268/9
- 신화하이텍(부산) 051-324-8045
- 천지하이커넥션(대전) 053-592-2266~7
- 호산 P&F (여수) 061-691-7783



대표이사 노 은 식
명예공학박사
서울대학교 SPARC 17기 회장

www.agriculture.co.kr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동부한농이 이끕니다!



한국농업의 대표기업 - 동부한농

작물보호제, 비료, 종자, 동물약품을 아우르는 한국 최대의 농자재기업, 동부한농 -
언제나 농업인의 곁을 지키는 농업인의 기업,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하는 국민의 기업,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한국농업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작물보호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정밀화학	작물보호제 원제, 중간체
비료	국내 시장점유율 2위	곤충자원	천적곤충, 수정벌, 사료용·학습·애완용·환경정화용·의약품 곤충
종자	20개 작물, 400여 제품 생산	플랜테이션	대규모 첨단 영농 및 해외 플랜테이션
동물약품	동물용 살충제 국내 1위	바이오	바이오농업, 바이오에너지, 바이오화학



동부한농

통일재원 마련 위해 통일계정 (통일항아리) 신설

동문을 찾아서

통일부 柳 佑 益 장관

통일부 柳佑益(지리67-71)장관을 만난 지난 3월 14일 오후, 여전히 중국 대사관 앞에는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현안 문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柳장관은 “동창회에서 찾아주니 반갑다”며 따뜻하게 기사를 맞았다.

2011년 9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柳장관은 질문마다 모교 교수로 30년 재임한 학자답게, 주중국 대사 시절 뛰어난 외교 역량을 발휘한 우리나라 통일 전문가다운 면모로 막힘 없는 답을 꺼내놓았다.

대 담 : 許 文 明(동아일보 국제부 차장)논설위원



－ 요즘 탈북자 복송 문제가 있는데.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본래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박해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우리가 그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이나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북한정권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한민족인 우리만이 나후된 북한의 경제 회생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비교할 때 두 세대 이상 뒤떨어진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죠.

북한은 지금 중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이 북·중 관계를 고려한 인도적 차원일 뿐입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가 개방될 당시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투자를 망설이는데 우리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에 뛰어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뒤처진다면 결국 북한은 그 흐름에 끌리게 됩니다. 굳게 지른 빗장을 풀고 하루빨리 남북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남북 간 상호 교류협력 부문 등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계속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과 관련해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피해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봉합하고 덮어두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실제로 제가 주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침몰했어요.

서로 조업하고 통제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죠. 사고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고 책임자가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감정적으로 욕하고 외교적인 문제로 비약시켜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당시 제가 중국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과 중국은 5천년의 역사를 공유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긴 국경을 나누고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물자와 정보, 사람이 오가는 사이다. 왜 문제가 없겠냐.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 그럴 때마다 사사건건 수교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렇게 말했더니 중국이 ‘그 생각이 맞다, 옳다’고 판단해서 사고는 사고대로 진지하게 조사해서 처리했죠.

중국과 우리나라는 역사를 공유해서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시와 소설을 읽고, 같은 시기에 일제로부터

고, 그렇게 함께 가도록 중국에도 요구를 해야죠.

만일 중국 시장이 없으면 우리 기업은 어디서 거대한 시장을 찾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면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산업화되면서 선진 자본주의 시장의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여서 중국이 많은 도움을 받았죠.

중국 사람들은 늘 저에게 한국은 선생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나는 공자가 내 선생님인줄 알았다. 당신들은 고대 문화에서 우리에게 선생님의 나라였다. 지금 우리도 빨리 체득한 부분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역사는 서로 주고받고, 밀고 당기면서 가는 거다. 그것이 합치면 선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제 한국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柳佑益장관은

1950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 상주고를 졸업했다. 모교 지리학과를 거쳐 1973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0년 독일 쾰른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거쳐 1980년 모교 부임 후 모교 교무처장, 세계지리학회(IGU)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장, 주중국 대사 등을 지냈으며 2011년 9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다.

柳장관은 지리학자로서 우리나라 국토와 분단 현실에 대해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국제정치 및 외교분야에서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저서로는 ‘장소의 의미’, ‘21세기 국토와 환경’ 등이 있다.

한·중 관계 정면해결이 기본원칙

남남갈등·사회분열도 ‘분단비용’

박도 당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외교부가 나서서 성명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안은 사안별로,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해서 이것이 더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양국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지구상 어느 나라도 싸우면 양쪽 다 손해이니 안 싸우고 해결하는 게 현명합니다.”

－ 현재 중국의 지도부나 국민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낭만적인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괴상한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됩니다. 중국은 있는 그대로 이웃나라이자 덩치가 큰 나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많이 공유한 나라로서 정확하게 보

한국은 세 번째 교역국이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한국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서로 맡겨서 교육하고, 장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 지금 탈북자 관리는 어떤가요.

“탈북자 관리보다 우리는 탈북자의 한국 정착기반을 조성해주고 정착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통일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탈북자 정착기반 조성입니다. 이 부분이 통일부 전체 예산의 약 58% 정도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 액수는 얼마입니까.

“1천2백39억원입니다. 통일부 정책을 지금까지 주로 분단관리와 평화안전관

리, 남북교류협력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준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탈북자 문제입니다. 탈북자의 공식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인데 그 말이 어려워 저는 ‘분단이주민’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탈북자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으로 저는 이미 통일과제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 이들을 나중에 통일된 한국에서 통합시켜내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이주민을 위한 초기 교육시설인 제2하나원도 건립 중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의교입니다. 주변국과 우리 통일에 관련돼 있는 나라에 찾아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통일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중 핵심은 그들에게



“분단과 통일은 변함없는 제 인생의 주제예요”

☑ 통일 한국이 귀국의 이해관계에 해롭지 않고 이롭다. 또 한반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 ‘통일항아리’도 만드셨는데.

“세 번째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통일항아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법제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통일항아리가 법제화되면 국민의 성금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해 우리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국민 스스로에게,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통일재원을 마련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통일의지에 대한 확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통일재원 마련은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법제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분단이재민이라는 말은 장관님이 만드신 말인가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웃음) 이재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 없이 갑자기 불행을 당하는 사람이지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은 다 이재민이고 탈북민도 죄가 없어요. 이재민과 같죠. 자신이 선택한 상황이 아니고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분단이재민이라고 표현했어요.”

— 분단이재민 관리에서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첫째는 그분들 건강이 다 나쁩니다. 이가 빠지고 위장장애, 결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사업이 적십자, 민간 기부까지 총동원하지만 매우 비쌉니다.

둘째는 이분들의 직업교육입니다. 북한에서 배운 부분이 우리 사회와 다르니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과 교육 문제죠. 아이들은 학교 가서 잘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취업이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앙처럼 믿고 따르니까 간절하죠.”

— 그러니까 목숨도 내놓고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직장도 구해주고 포용해야 하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채용을 꺼려요.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업이 당연히 감싸 안아야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이들을 봐줄 필요도 없어요. 정당하게 대우해도 충분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계몽을 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고 통일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탈북자 재교육 통해 사회에 정착시켜야

모교 교무처장·대통령실장·駐中 대사 지내

생각해요.”

— 사람들은 통일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 됐잖아요. 최근에 독일에 가서 예전에 같이 공부하고 어울렸던 사람들 만나면서 ‘먼저 통일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도 도와줘라. 이제 내가 세계에서 단 한 명인 통일부 장관이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든지 부탁만 해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신감과 행복한 기운이 전달되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통일과정에서 진통을 몇 년만 제대로 겪어내면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이웃을 향해서 뭘 도와줄까 고민하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요즘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통일됐을 때 어떤 의미와 이득이 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식민지 시대를 예로 들면 일제 통치가 장기화되면서 1930년대 말이 되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독립을 포기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화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릅니다.

이제 분단된 지 60년이 넘었어요. 분단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닌 또는 6·25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지금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분단이라는 족쇄를 차면서 순응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예로 살면서 동화되는 과정이나, 식민지 시대의 피지배 인민으로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과 다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약간 편한 부분을 택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독일이 ‘어느 날 문을 여니까 통일이 거기 와서 서 있더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1970년대 독일에 공부하면서 관찰자로 지낸 분단국가의 유학생인 제 눈엔 그렇지 않아요. 독일 국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통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분단 당시 경제적으로 우세했던 서독은 전 유럽에 돈을 빌려줬어요. 당시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의 재정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죠. 모든 나라가 독일에 돈을 빌렸어요. 독일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 과거에 전쟁으로 전 세계에 빚진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 내면에는 ‘우리가 통일할 때 도와줘’ 이런 배경이 있어요.

또 당시 수상은 취임하면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주변국들이 전부 독일이 달라진 것을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그 많은 노력의 결실이 어느 날 통일로 나타난 것이지, 독일 사람들이 놀았는데 통일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통일이 오는 것이죠.”

— 한국 사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남남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큼니다.

“남남갈등도 결국 북한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통일이 돼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정당 정책을 놓고 논쟁하는 정도로 끝나야 하는데 지금은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사실은 이것 또한 분단비용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의심·질시·증오·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심성을 갈아먹고 메마르게 합니다. 전부 분단비용이에요.”

— 모교 지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 달 이상 학교라는 곳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군대도 육사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핏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웃음)

제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면서 서울대에 사표를 냈어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모교에서 교무처장까지 한 사람이 좋아하고 정들었던 학교를 떠난 것에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지만 지리학도로서 공부를 시작한 이래 분단과 통일은 변함없는 제 인생의 주제입니다.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은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學而報國’이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는 말인데 학문을 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는 뜻이죠. 저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진 = 玄智愛기자·정리 = 邊榮顯기자)

통일의 필요성은 무수히 많지만 설명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단비용입니다. 지금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분단비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래 우리 국토는 대륙으로 뿔뿔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단된 현실 때문에 부산에서 기차 타고 한반도를 종단할 수 없죠. 이런 경우가 분단비용입니다.

그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순치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후속 세대에게 ‘피상적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안주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南益鉉기획처장, 세 명 건너 인문대 邊昌九학장·朴武益동창회장, 任廷基연구부총장, 吳然天총장, 朴容眩회장

‘두산인문관’ 재건축 준공

朴容眩회장 기금 50억원 지원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3월 28일 관악캠퍼스 인문대학 부근에 재건축한 ‘두산인문관’(8동)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모교 吳然天총

장, 朴明珍교육부총장, 任廷基연구부총장, 인문대 邊昌九학장, 의대 동창회장 겸 본회 부회장인 두산그룹 朴容眩(의학62-68)회장을 비롯해 등 모교 보직교수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오늘은 두산그룹과 朴斗秉창업자님의 투혼이 부활한 날”이라며 “이번 두

산인문관 준공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건물이 완공됐다”고 말했다.

기존 蓮崗기념관은 본회 초대 회장을 지낸 故 朴斗秉회장의 장학기금으로 1974년 건립됐으며, 두산인문관은 2010년 11월 30일 朴容眩회장이 선친의 뜻을 받들어 50억원을 쾌척해 완공됐다.

두산인문관은 蓮崗기념관을 허물고 지난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연면적 3천6백2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강당과 공연장,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모교 병원

12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차지

모교 병원(원장 丁熹原)이 지난 3월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12 제14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결과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가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수여되는 ‘골든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감으로

써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업 등 전 산업군을 망라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과 6대 광역시 거주 만 15~60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丁熹原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사랑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혜와 속도”를 키워드로 하는 혁신을 통해 더욱 차원 높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사랑 받는 병원, 글로벌 헬스 리더로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명품 의료브랜드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최초로 체계화한 브랜드 관리 모델에 의거해 지난 1999년 제1차 조사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평가 제도이다.



모교 암병원

개원 1주년 음악회

모교 암병원(원장 盧東榮)은 지난 3월 23일 병원 로비에서 의료진과 교직원 가족, 보호자가 연주자로 참여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암병원의 희망메시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개원 1주년을 축하하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음악부터 뮤지컬 음악,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꾸며진 이날 음악회에는

모교 의대 朴紀好(의학81-87)기획부학장, 張學(의학83-89)교수, 姜熙京(의학90-96)교수, 鄭賢熏(의학91-97)교수 등이 연주 실력을 발휘했으며, 모교 병원 간호사들로 구성된 ‘희망소리’가 합창을 선사해 큰 박수를 받았다.

盧東榮원장은 “암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한 암병원 음악풍경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능기부로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환자, 보호자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사람의 진심이 모여 만드는 감동을 통해 암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모교 병원 둘러봐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일행이 지난 3월 26일 모교 병원(병원장 丁熹原)을 방문했다.

대통령 일행은 모교 암병원 ‘서성한 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모교 병원의 우수성 및 국제적인 활동상, 카자흐스탄과의 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丁熹原병원장 등 병원 간부진과 환담을 나눴다. 이후 암병원 중앙영상센터의 PET-CT 등 최첨단 의료장비와 병동, 치유정원을 둘러봤다.

모교 병원은 카자흐스탄 의료기관과 진료 교육 연구 부문의 상호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카자흐스탄 의료진에 대한 임상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또 연간 1천여 명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인 해외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세계 대학 평판 순위 50위권

英타임스 고등교육원 평가

모교가 영국 타임스 고등교육원과 톰슨 로이터가 공동으로 조사한 세계 대학 평판 순위에서 51~60위권에 올랐다.

세계 대학 평판 조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순위는 50위까지 개별대학, 이후 순위는 포함된 범위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1백37개국 1만7천5백54명의 교수와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 하버드대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도쿄대가 8위에 올라

아시아 대학 중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었다. 아시아 대학 중에서 교토대 20위, 싱가포르 국립대 23위, 칭화대 30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10위권 내에 미국 대학이 총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국 대학은 2곳(케임브리지 3위, 옥스퍼드 6위)이었다.

모교는 지난해에도 51~60위권을 기록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KAIST가 모교의 뒤를 이어 81~9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과학대 학장에

梁承穆교수 임명

지난 3월 23일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언론정보학과 梁承穆(신문 74-79)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梁학장은 1956년생으로 모교 대학원과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사학위, 1988년 스탠퍼드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梁학장은 충남대 교수를 거쳐 1995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대학



신문 주간·언론정보연구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분과위원, 한국방송공사 미디어포럼 방송분과위원장, 제37대 한국언론학회장 등을 지냈다.

사회대 언론정보대학원

도쿄대 등과 화상수업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 대학원은 3월부터 ‘동아시아 미디어 분석’ 강의에서 화상 시스템을 통해 도쿄대·베이징대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한·중·일 세 나라 대학이 공동 화상 강의를 함께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 姜明求(대학원78졸)교수는 ‘한·중·일 대중문화의 흐름’, 도쿄대 소노다 교수가 ‘한·중·일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비교’, 베이징대 왕이홍 교수가 ‘3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호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수업에서는 화상으로 세 나라간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자연과학대학

청소년 ‘자연과학’ 강연

자연과학대학(학장 金明煥)은 지난 2월 23~2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제19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을 개최했다.

자연대는 매년 겨울방학에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대 과학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공개 강연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철학과 언어학 등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자연과학의 미래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됐다.

강연자로는 모교 물리천문학부 金廷九(전기공학65-69)·철학과 李碩宰(철학86-90)교수, 이화여대 崔在天(동물73-77)석좌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물관

발굴조사 반세기 회고展

박물관(관장 金仁杰)은 전시환경 개선공사가 완료됨에 지난 4월 2일부터 고고역사전시실에서 그동안 모교 박물관이 발굴조사한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회고전을 개최한다.

1961년 5월에 실시한 양주 수석리 초기철기시대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모교는 국내외 수많은 주요 발굴조사에 참여해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강 유역에서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유물들이 새롭게 전시된다. (榮)

IBK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기업은행서 기금 50억원 출연

지난 3월 29일 IBK기업은행(은행장 趙浚熙)이 모교에 언론인 양성과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갖춘 'IBK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기금 50억원을 출연했다.

모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과 趙浚熙은행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센터 내 새롭게 신설될 창업지원센터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면적 3천3백㎡ 규모로 지어질 IBK커뮤니케이션센터는 우수 인재를 재교육·양성하는 언론인 교육의 요람으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이 센터는 모교 구성원들의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로 구축되며, 언론, 미디어, 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21세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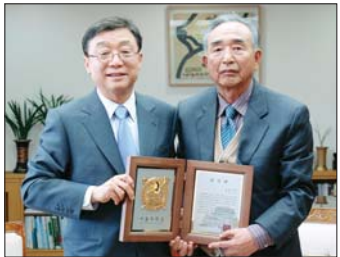
문적인 언론인, 정보문화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교와 기업은행은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모교의 우수한 지적자산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모교는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은행의 경영노하우와 네트워크로 모교와 중소기업을 연계하고, 모교는 특허지식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를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뇌졸중 이겨낸 尹石淳동문

모교 발전기금 2억원 쾌척



지난 3월 26일 尹石淳(수의학 59-64)동문(사진 右)이 모교 발전기금에 2억원을 쾌척했다.

충남 천안에서 사과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尹동문은 "40대 초반

발병된 뇌졸중으로 20여 년간 마비증세와 언어장애를 겪는 힘든 시간을 지내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사회와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모교 재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이 가장 뜻깊다는 생각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尹동문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모교 수의과 재학생들을 위한 희망장학금과 모교 수의대 대동물임상교육 시설 보수 공사에 사용될 방침이다.

농업기업 아시아종묘 장학금 1억원 기부

지난 3월 23일 농업회사법인인 아시아종묘(대표 柳景午)가 모교 농생대 식물생산과학부 원예학과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은 기업의 취지에 따라 '아시아종묘 장학금'을 설립하고 모교 원예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992년 설립된 아시아종묘는 국민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생산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종자의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011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3백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조 씨는 편지에 "현재 28세인 청년으로 상경해서 5년 동안 주유소 아르바이트로 모은 3천만원이 재산의 전부지만 고심 끝에 서울대 도서관에 1백만원을 기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모교가 세계 일류가 되는 데 동참하는 의미로 기부를 결정했지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기를 원했다. (榮)

고졸 학력 20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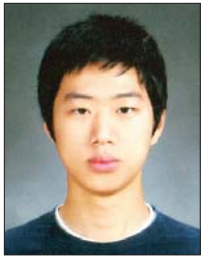
중앙도서관에 신축기금 출연

지난 3월 7일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朴枝香)에 조모씨로 알려진 한 20대 청년이 찾아와 도서관 신축기금에 써달라며 현금 1백만원이 든 봉투와 자필편지를 전달했다.

고졸 학력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은 모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행사의 첫 번째 기부자로 지난 2월 중앙도서관 일반인 회원으로 모교와 인연을 맺었다.

재학생의 소리

“열정과 아마추어 정신이 빛나는 곳”



裴得默
(체육교육10입)
농구부 주장

저는 체육학도로서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해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농구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열정과 순수 아마추어 정신입니다. 동아리는 1946년 창설됐고 그 이후 1967년 현 농구부 張甲鎭(상학49입) 감독님의 주도 하에 정식으로 '서울대 농구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실 농구부는 동아리가 아니라 서울대를 대표하는 운동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엘리트 선수 출신의 학교 입학이 어려워진 관계로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실력을 누구보다 넘치는 열정과 근성 그리고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바탕으로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농구부는 매년 여름 전국대학농구연맹전과 MBC배 농구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농구대잔치에 참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기에 한 번씩 총 1년에 두 번 서강대, 육군사관학교와 교류전을 하고 있으며, 때때로 해외대학 초청을 받아 해외교류전을 합니다.

현재 농구부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학교 대표로서 정체성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늘 서울대를 대표하는 운동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지원은 중앙 동아리보다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이기에 교통과 숙박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울대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미약해 지방대회에 참여할 경우 학생들이 자비로 숙박 시설과 교통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구부가 단순히 학생들의 열정의 장을 넘어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로서 그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www.sie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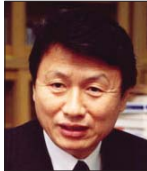


SIEG

2012 SPRING / SUMMER
COLLECTION

정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9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2월 2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추려서 소개한다.	 權寧顯교수·국어국문학 모교 국어국문학과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4년 국어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덕성여대와 단국대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인문대 학장·인문학연구원장, 월간 문학사상 편집주간 등을 지냈다.	 朴漢濟교수·동양사학 69년 모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9년 석사학위, 88년 동양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교수를 거쳐 85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동아문화연구소장, 한국중국학회장, 동양사학회장 등을 지냈다.
 崔夢龍교수·고미술사학 64년 모교 고고인류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3년 미하버드대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교수를 거쳐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박물관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한국상고사학회장 등을 지냈다.	 崔聖載교수·사회복지학 66년 모교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80년 미워싱턴대에서 석사학위, 84년 메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지냈다.	 池東杓교수·수리과학 64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1년 미탬플데에서 석사학위, 75년 미펜실베이니아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관악사 사감·자연대 수리과학부장·BK21수리과학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申菊朝교수·화학 65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8년 캐나다 맥길대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자연대 교무담당학장보·기초과학연구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한화학회장 등을 지냈다.	 尹都寧교수·화학 모교 화학공학과 69년 졸업, 73년 미메사추세츠공대에서 고분자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IBM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99년 모교에 부임해 한독국제연구그룹(IRTG)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스탬퍼드대 교수로 활동 중이다.	 安善仁교수·생명과학 67년 모교 생물교육과에 입학해 74년 졸업, 미테네시대에서 77년 석사학위, 81년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관악사 사감·생물교육과장·사범대 교무담당학장보, 한국생물과학협회장 등을 지냈다.
 高梧煥교수·지구환경과학 65년 모교 식물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4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9년 독일 쾰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해양학과장,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집행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趙國樞교수·지구환경과학 64년 모교 지질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1년 미리하이대에서 석사학위, 78년 캐나다 맥길대에서 해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자연대 해양학과장 등을 지냈으며 2008년 교과부 우수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林鍾元교수·경영학 66년 모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78년 미앨라배마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명대 교수를 거쳐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경영연구소장, 한국마케팅학회장 등을 지냈다.
 劉丁烈교수·기계항공공학 65년 모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미미네소타대에서 73년 석사학위, 77년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교무부처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대한기계학회장 등을 지냈다.	 成宏模교수·전기공학 65년 모교 전자공학과 입학, 독일 아헨대에서 73년 학사학위, 77년 석사학위, 82년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장, 대한전자공학회장, 한국음향학회장 등을 지냈다.	 禹治水교수·컴퓨터공학 모교 응용수학과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7년 석사학위, 79년 계산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공과대 교수를 거쳐 82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자연대 계산통계학과장,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李東勳교수·산업공학 66년 모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미켄사스주립대에서 74년 석사학위, 77년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공대 산업공학과장, 대한산업공학회 부회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李昇九교수·식물생산과학 66년 모교 농화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76년 미아칸소대에서 석사학위, 81년 미캘리포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농생대 교무부처장, 한국수확후관리협회장, 한국원예학회장 등을 지냈다.	 李敦求교수·산림과학 65년 모교 임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임업통계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농생대 학장, 한국임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산림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韓雲晟교수·서양화 65년 모교 회화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회화, 미탬플데에서 판화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덕성여대 교수를 거쳐 82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조형연구소장·미대 부학장, 한국현대판화가협회장 등을 지냈다.	 李興在교수·법학 64년 모교 법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84년 석사학위, 88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거쳐 8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법학연구소 부장, 한국노동법학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權炳柱교수·지구과학교육 65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미인디애나대에서 75년 석사학위, 77년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장, 대한자연환경지질학회장, 한국지구과학회장 등을 지냈다.
 李達淑교수·식품영양학 65년 모교 농가정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일본 도쿄대에서 77년 석사학위, 80년 농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생활대 식품영양학과장·생활과학연구소장, 한국과학기술연합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金柄國교수·의학 64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3년 석사학위, 80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중앙도서관 의학분과장, 대한혈액학회장, 대한수혈학회장 및 이사장 등을 지냈다.	 金容植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80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동국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金周顯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학위, 82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병원 홍보외과 과장, 대한홍보외과학회장, 아세아홍보외과학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金賢執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5년 석사, 84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장, 한국신경외과아카데미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분당 모교 병원 척추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吳承根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78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대한내분비외과연구회 초대 회장, 대한내분비외과학회 자문위원, 대한외과학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張基賢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4년 석사학위, 80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의대 의학교육연구소장,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장, 대한영상의학회장 등을 지냈다.	 李明哲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6년 석사, 83년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가천길병원 병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金基浩교수·환경조경학 65년 모교 건축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77년 미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모교 환경대학원장·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 서울시건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지우의 취향과 승헌의 감각, 한 번에 만족시키다

화장품 패션 양주 면세 전품목을 한 곳에서 만나는
Shopper's Wonderland - 롯데면세점



Shopper's Wonderland

LOTTE
DUTY
FREE



국내 최초 모바일 면세점 오픈!

Korea • 서울 본점 • 서울 월드컵점 • 서울 코엑스점 • 인천공항점 • 김포공항점 • 부산점 • 김해공항점 • 제주점 • 제주공항점 • 가나면세점 Indonesia • 자카르타점 • 대표전화 1688-3000 • 인터넷 면세점 www.lottedfs.com •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kr.lottedfs.com

환자중심의 신뢰 받는 종합병원



인천기독병원

2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선정

전문센터 운영

- 척추센터, 인공관절센터
- 내시경수술센터
- 소화기내시경센터
- 인공신장센터 : 야간시간 운영(월,수,금)
- 건강증진센터
- 암정밀조기검진 - PET CT
- 암치료기 - HIFU Knife



병원장 / 의학박사
이 용 성

응급실 : 전문의 24시간 진료
장례식장 주차장 확보

인천시 중구 을목동 237번지 <http://www.goich.co.kr>
 • 대표전화(032)270-8000 • 응급실(032)270-8300
 • 장례식장(032)270-8490 • 건강증진센터(032)270-8255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특허로 승부한다!
DRIFTING CASTER SCOOTER
 The Ultimate Drifting Experience



에스보드 달리고
 Made in KOREA

DALLY~GO



콩트 릴레이

TV 三國기행

崔民錫(대학원04-06)
소설가



기묘한 일이었다. 지친 몸으로 말 그대로 침대에 뺨어 있었다. 그 와중에 한 손엔 TV 리모컨을 들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TV로 사소한 정보 한 자락이라도 섭취해야겠다는 현대인의 강박 관념인지, 아니면 TV시청이 곧 휴식이라는 생각의 발로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흐흐마 저 바깥게 느껴지는 새벽 1시, 나는 미라처럼 누워 TV를 켰다. 눈은 이미 반쯤 감긴 상태였지만, 흐흐기를 뿜 수 없는 환자처럼 켜한 눈으로 모니터를 관망했다. 한쪽에서는 토론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연 프로그램이, 다른 한쪽에서는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그 토론과 경연과 드라마 사이에는 간장게장과 영광굴비와 과메기가 먹음직스럽게 광고되고 있었다.)

“

무엇이 현실이고 가상인지,
무엇이 화면이고 실상인지 혼란스러웠다.
TV모니터에선 오디션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애절하게 몸을 떨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채널에서는 재연배우가
관습적인 연기를 하고 있었고,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나시민과 나여옥을
그대로 닮은 정치인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

그러다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토론 프로그램에서 육박전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던 두 출연자가 똑같은 화면조정 색깔의 도복을 입고, 무협영화의 엑스트라처럼 합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쪽이 주장을 하면, 다른 한쪽이 비웃음을 선보였고, 그 비웃음에 발끈한 듯 다른 한쪽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훈련감독처럼 보이는 자가 갑자기 타이머를 누르며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둘은 익숙한 듯 악수를 했다. 한쪽이 손을 흔들며 “그래도 예전엔 이렇게 까진 하진 않았는데 말이야…”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지금에 와서 콘셉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라고 되받았다. 나는 그 광경을 어이없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불쑥 말을 걸었다. “그래, 어쩐가. 시사교양國에 온 느낌이야… 둘이 합 맞추는 데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하며 꺾꺾 웃는 그는 뭐랄까, 어릴 적 봤던 ‘환상특급’류의 프로그램에나 나올 법한 전형적인 해설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구겨지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뽀뽀하게 다려지지는 않은 양복,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으나 반질거리지는 않는 헤어스타일, 선글라스를 끼곤 있으나 위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인

상. 그는 자신을 ‘TV가이드’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내가 떨어진 곳이 바로 ‘TV월드’라 했다. 나는 그 황당한 설명에 기함을 하고 말았다. 그 때문인지 도복을 입고 합을 맞추고 있던 ‘나시민’과 ‘나여옥’은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어쨌 그 눈빛에는 ‘저자가 그자인가!’하는 일종의 확인, 그리움, 안타까움, 절망, 그 인식에 따른 회한, 체념 같은 것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도대체 내가 왜 이곳에 떨어졌으며, 저들은 왜 저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TV가이드는 노화한 표정으로 “자, 자, 차차 설명해줄 테니 일단은 따라오게나. 기왕 TV월드에 왔으니, 일단 세 나라를 차근차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세”하며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갔다. 그때 감독으로 보이던 자가 다시 호루라기를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불었다. 언제 악수를 했나는 듯이 나여옥은 나시민을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나시민은 익숙한 듯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안경을 고쳐 쓰며 표독스럽게 눈썹을 꿈틀거렸다. 어쨌 그 눈빛한 구석엔 생계의 쓸쓸한 고단함 같은 것이 묻어나 보였다.

남자가 이끌고 간 곳은 예능國이었다. 그는 뭔가 대단한 비밀을 말하듯이 손으로 선글라스를 치켜세우며 입을 열었다.

“실은 말이야, 여기가 핵심이야. 요즘엔 여기서 모든 가치가 확산된대네.”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그를 멀뚱히 보았다.

“자네도 대충은 알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유 경쟁이 보장돼 있어.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으면 노력하면 돼.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 때론 투표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마침 애절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아이가 구석에서 “술 음에 16분 음표의 애절한 운명적 비애를 담아낼 수 없다”며 울부짖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32비트의 흥겨움을 어떻게 하면 경망스럽게 않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며 머리를 쭈고 있었

다. 청춘들의 눈빛에는 오로지 ‘술’ 음과 ‘32비트’에 대한 고민만이 가득해 다른 문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였다. “걱정 말게. 저 친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멘토’들이 있으니까”라며 TV가이드는 유력 인사들을 소개했다.

“어. 이쪽은 올바른 부모들로 구성된 일종의 아버지 연대 ‘자유 연합 패어런츠 회’, 아, 요즘엔 줄여서 ‘JYP’라고 하더군. 그리고 이쪽은 이 나라의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몸소 익히고 오신 선진 문화를 퍼트리고 계신 ‘양키 글로벌 회’, 역시 줄여서 ‘YG’라고 해. 마지막은 선두주자 역할을 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퍼뜨리신 분이시지. 예능國뿐만 아니라 TV월드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를 이름에 담고 계신 분들이지. ‘신자유주의 만세 회’, ‘SM일세.’”

세 모임의 대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네도 꿈이 있으면, 오디션 한 번 보게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일단, 살부터 좀 빼고 말 이야…”(라고 말하는 JYP의 한 손엔 닭 가슴살 캔이 들려 있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TV가이드가 목소리를 무겁게 내리깔고 냉정히 거절했다.

“이 분은 다른 운명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사회적 약속이라도 되는 듯 세 모임의 대표는 일제히 놀란 표정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이때에도 역시 이들의 눈빛에는 ‘아니, 이자가 그자인가!’하는 현실 인식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똑같은데. 우리 입법까지 했네.”

그가 해준 설명은 놀라웠다. 이 나라에서는 일명 ‘엘리트 코스’라는 것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하고, 필연적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알고 보니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낳아준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한강 고수부지(의 정해진) 계단에서 소주를 입에 잔뜩 넣어 분무기처럼 내뿜은 뒤 (마치 의무 과정처럼) 어두운 밤길을 휘청거리며 걸어야 하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와중에 교통사고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만 겪는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바로 여기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성공기도를 달릴 것이나 팔다리만 부러지면 그저 병원 신세만 지며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해서 기억을 되찾지 못하는 불안을 겪을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드라마國의 기후와 환경 특성상 기억을 되찾게 해줄 자연적 요소, 예컨대 번개와 천둥, 낭떠러지에서의 추락, 아니면 교통사고나 과한의 습격 등 인력에 의한 보조적 장치가 무수히 있으니, 달리 보면 이것도 다 광의의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했다. 나는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필요 하느냐고 또 항변했는데, 남자는 광장에서 연설을 하려던 당연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냐고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재연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남자가 울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다.

“너무 억울해요. 태생적 조건이 계급으로 주어지는 이 사회가 싫어요.” 그 뜬금없는 호소에, 내가 그를 의아한 눈으로 보자,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도 당신처럼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단 말이예요! 이 (복 받은) 비운의 서자야!”

나는 충격에 휩싸여 TV가이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자네, 아까 두 나시민의 눈빛이 뭔가 남다르지 않았는가?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하고 무겁게 말했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하며 뛰쳐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변 고수부지에 앉아 입에 담은 소주를 분무기처럼 뿌리고 있었다. 그러다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부품처럼 수동적으로 받거리를 걸으며 고민에 빠졌고,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어디선가 돌연 등장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두 눈을 눈부시게 했다. 나는 그만 다리가 휘청거리고 말았다. 그 순간 탄막한 무언가에 부딪히며 별이 추락하는 속도로 영혼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눈을 떴을 때 침대 시트는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한 손에는 리모컨이 위태롭게 걸쳐 있었다.

무엇이 현실이고 가상인지, 무엇이 화면이고 실상인지 혼란스러웠다. TV모니터에선 오디션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애절하게 몸을 떨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채널에서는 재연배우가 관습적인 연기를 하고 있었고,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나시민과 나여옥을 그대로 닮은 정치인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현실 속의 나여옥은 TV월드 속의 나여옥처럼 나시민을 차갑게 쏘아붙이고 있었고, 나시민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치켜올리며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어디선가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눈빛이 뭔가 남다르지 않은가?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네.”

나는 혼란스러워 서둘러 TV를 켰다.

동 정

수 상

▲南興祐(경성제대35-39 변호사)=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池明觀(종교48-54 前한림대 총장)=지난 3월 9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일송기념사업회로부터 제7회 일송상 수상.

▲李益春(화학48-56 인하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3회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李相滿(수의학48-56 前인천시 웅진군 공수의)=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스카우트 육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

공화 금장 수상.
▲李時潤(법학54-58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尹世榮(행정56-61 SBS 명예회장·분회 부회장)=최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명 동평동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성

공개회 범국민 다짐대회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朴相千(법학57-62 국회의원)=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姜昌五(금속공학63-71 포스텍 석좌교수)=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6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安京煥(법학66-70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李榮柱(의학72-78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소장)=지난 3월 21일 제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상.

▲許日燮(경영73-77 녹십자 회장)=지난 3월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회 바이오스펙트럼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상' 수상.

▲朴容晚(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

훈장 수훈.
▲李承勳(의학74-80 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지난 3월 21일 제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徐榮俊(제약77-81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11회 보령암학술상 수상

자에 선정.
▲李相輝(화학공학82-86 KAIST 특훈교수)=지난 3월 27일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화학회로부터 2012년 마빈 존슨상 수상.

▲趙顯五(대학원86졸 경찰청장)=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金鎭一(경제85-89 고려대 교수)=지난 3월 22일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버블'이란 논문으로 제42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安德根(국제경제86-90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3월 8일 국제거래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心堂(宋相現)학술상 수

상자에 선정.
▲朴祉炯(경제86-90 모교 경제학 부 교수)=지난 3월 22일 '불안정한 사적 감시를 통한 국제무역협정의 이행'이란 논문으로 제42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張準根(기계설계86-90 나노엔텍 대표)=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젊은 공학인상 수상.

▲鄭允澤(AMP 53기 효성 사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

훈장 수훈.
▲盧喜燦(ACAD 33기 삼일방직 회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李康國(ACAD 63기 E-유로 대표)=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분회 부회장)=지난 3월 6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12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

▲全泳杓(언어56-60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최근 임기 4년의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부회장에 재선임.

▲千冀吉(농경제57-61 농업사회 발전연구원 부원장)=최근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총회에서 원장에 선임.

▲金聖基(농경제58-64 농협동인회 부회장)=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농협동인회 회장에 취임.

▲宋相現(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장)=지난 3월 11일 임기 3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재선임. 또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에 선임.

▲權寧彬(사학61-65 前경기문화재단 이사장)=최근 임기 3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대 위원장에 임명.

▲李哲永(상학63-68 ARK사모펀드·마슈룸코리아 회장)=최근 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킹 초대 이사장에 선출.

▲秋昊卿(철학65-69 법률사무소 바로 대표변호사)=지난 3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에 선임.

▲李慶衡(사회66-70 헤이리 문화위원장·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31일 경기 과주시의 예술마을 헤이리 제5대 이사장에 선출.

▲李元馥(건축66임 前덕성여대 예술대 학장·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19일 덕성여대 장학이래 최초의 석좌교수로 임용.

인 사

地球입니까? 海球입니까?

생각의 축을 옮기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좁은 한반도의 땅만이 아니라 바다로까지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차지하게 될 미래의 크기는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광대한 바다영토를 개척하고 내일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동원산업은 바닷길에서, 물길에서, 수산유통과
물류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산유통에서 물류까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44척의 선단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수산기업

44척의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선단을 보유한 동원산업은 적도의 태평양에서 지구 최남단 남방양까지,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새로운 어장과 미래식량을 개척하며 해가 지지 않는 수산대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 물류시스템의
개척자 - 로엑스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로 선정된 동원산업의 로엑스는 약 1,000여대의 전문 수 배송차량과 풍부한 운영경험, 전문인력, 선진물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토털 물류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뛰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산유통기업

특수 냉동탑차와 초저온 특수컨테이너 등 초현대식 수산유통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춘 동원산업은 선진 유통시스템을 통해 갖 잡은 참치와 수산물의 신선함을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金振煥(법학67-71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지난 3월 26일 대한공증인협회 회장에 선출.

▲尹載允(법학71-75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춘천지방법원 법원장)=최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에 선임.

▲徐正雨(지리74-78 前한국회계기준위원장·국민대 교수)=지난 3월 19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에 선임.

▲安豪榮(외교75-79 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지난 3월 2일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임명.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지난 4월 1일 임기 1년의 사단법인 한국재정학회 제28대 회장에 취임.

▲權在弘(식물77-81 MBC 뉴스 데스크 앵커·보도국 선임기자)=지난 2월 22일 MBC 보도본부장에 선임.

▲尹汝權(경제77-81 前미래기획위원회 단장)=지난 3월 20일 임기 2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에 취임.

▲安健熙(법학78-84 이노션월드와이드 대표)=지난 2월 27일 한국광고업협회 제18대 회장에 선임.

▲王允鍾(경제81-85 SK차이나수석부총재)=지난 2월 28일 중국내 한국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 회장에 선출.

▲丁康讚(공법84-88 前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최근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푸르메 대표변호사에 취임.

▲朴光武(행대원87-89 前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지난 2월 22일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

▲金宗圭(AMP 29기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최근 임기 2년의 광화문문화포럼 제5대 이사장에 선출.

▲李元睿(AMP 69기 前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롯데쇼핑 부사장)=최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

▲金龍朱(AMP 69기 롯데삼강·롯데햄 대표이사 전무)=최근 롯데제과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

▲朴建鉉(AMP 70기 신세계백화점 대표)=지난 3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제19대 회장에 선출.

▲朴昌玟(AIP 19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3월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

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
▲朱範魯(HPM 2기 민주화추진협의회 부회장)=최근 임기 3년의 新安 朱氏 중앙총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행 사

▲申光享(수의학52-56 모교 명예교수·한국식품안전협회 명예회장)=지난 3월 16일 서울 사당동 파스텔시티 3층 Xin에서 팔순 기념 회고록 '잉크가 바랜수록 추억은 빛이 난다'(지상사판) 출판기념회 개최.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3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농정현안·당면과제 논의.

▲李秉錫(화화58-62 한국미협 고문·서양화가)=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시회 개최.

▲李惠星(국어교육58-62 한국상담대학원대 총장)=최근 한국상담대학원대 첫 석사 졸업생 32명을 배출. 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상담센터 개원.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

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3월 29일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제175회 월례발표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71 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29일 6·25전쟁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19대 총선 재외국민선거 참여 현황' 특강.

▲金東奎(의학72-78 모교 신경의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12일 모교 병원 감마나이프센터에서 저서 '전이성 뇌종양의 치료' 출판기념회 개최.

▲李健宰(의학72-80 강원대 교수)=지난 3월 1일 공역자 및 편역자로 참가한 개론서 '스포츠 영양학 2판'과 '대학생을 위한 스포

츠 영양학' 출간.
▲李珉柱(회화76-80 삼삼아트 대표)=지난 4월 2~1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문화갤러리에서 '共鳴筆線의 유희'를 주제로 초

대전 개최.
▲권경희(기악93-97 피아니스트)=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라벨, 베토벤, 슈만,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손치호(기악93-97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지난 3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0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1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사라사테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黃宗屹(조선항공50졸 모교 명예교수)=3월 12일 별세(84세)
▲高在君(농공학51-55 모교 명예교수)=3월 10일 별세(84세)
▲景在映(법학51-56 前감사원 심의관)=3월 12일 별세(81세)
▲姜泰雄(의학51-57 前원자력병원장)=3월 16일 별세(80세)
▲林容圭(전기공학52-56 원자력안전아카데미 이사장)=3월 3일 별세(79세)
▲李弼鎬(광산학62졸 하이메트 회장)=3월 23일 별세(73세)
▲李萬享(상학57-63 前금호렌터카 사장)=3월 13일 별세(73세)
▲徐振錫(경제57-64 前화승그룹 부회장)=3월 24일 별세(75세)
▲金正吉(작곡58-62 모교 명예교수)=3월 17일 별세(78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2012년 돈 버는 전주!

를 드립니다.

“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대한민국 전주로 오십시오!”

기업유치는...
기업은 더 크게,
지역발전은 더 빨리,
아들, 딸에게 일자리를,
살기좋은 전주의 시작입니다.

기업유치 ! 첨단 전주의 미래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친환경복합단지
신안국가산업단지
금제자유무역지역
혁신도시
전주



www.daejoo.co.kr

DAEJOO Leads Innovation

대주전자재료(주)는 대한민국 전자재료 분야의 혁신적 도약을 주도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재료의 역사와 함께한 대주전자재료(주)는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명가의 자부심을 이어왔습니다.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명성을 드높이고 지속적인 핵심경쟁력을 갖춘 전자재료 회사로 발전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大洲電子材料株式會社

DAEJOO ELECTRONIC MATERIALS CO.,LTD.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년연속 메디컬코리아대상 [치과병원 부문]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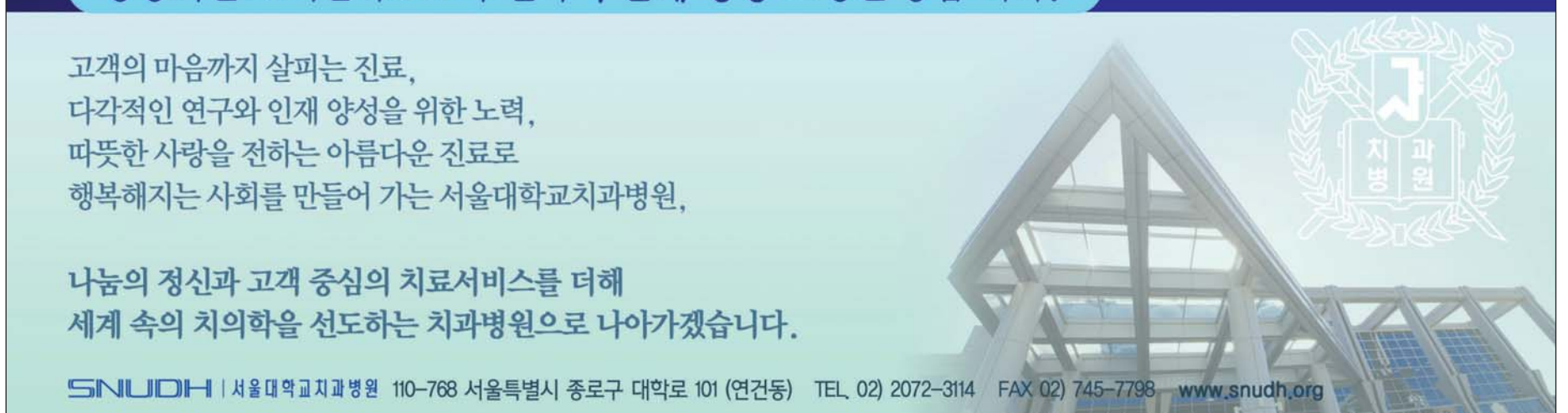
2년연속 대한민국 글로벌의료서비스대상 [치과병원 부문] 대상 수상!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두단계 상향 조정된 등급 획득!

고객의 마음까지 살피는 진료,
다각적인 연구와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진료로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나눔의 정신과 고객 중심의 치료서비스를 더해
세계 속의 치의학을 선도하는 치과병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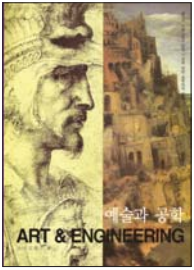
SNUDH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10-768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TEL. 02) 2072-3114 FAX 02) 745-7798

www.snudh.org

신 간

■ 예술과 공학

— 金炯珠 지음



삼안전 회 金炯珠(토목 공학 46-50 관악회 이사) 동문이 예술과 공학의 정의, 진화 과정, 기능 등을 담은 책을 펴냈다.

金동문은 이 책에서 공학은 예술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공학자가 공학기술을 연구하는 자세는 예술가가 작품을 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 공학기술을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작업과 사유, 그리고 결과가 예술을 만드는 그것보다 더 순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부록에는 우리사회 중추기관의 주요인물, 우리나라 역대 왕계표, 해외 여러 나라의 보석, 공예품, 회화, 건축물 등의 사진을 담았다. (비매품)

■ 잉크가 바렐수록

추억은 빛이 난다

— 申光淳 지음



모교 수의학과 申光淳(수의학 52-56) 명예교수가 자신의 인생역정을 반추하면서 후대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정리한 책.

申교수의 전작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연다: 식품위생 정책의 역사’가 1960~70년대 우리나라 초창기 식품위생 관련 제도와 정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과 그 배경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본업인 교수 시절에 이룬 교육·연구·봉사의 성과들, 정년퇴임 후의 생활, 그리고 개인의 인생역정과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저자의 모든 과거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한 총 8장의 회고록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과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 자료들도 많이 수록돼 있다. (지상사刊·값19,500원)

■ 한국그림의 전통

— 安輝濬 지음

한국에 없던 ‘한국회화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고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듄직하게 역할을 수행했던 모교 고고미술사학과 安輝濬(고고인류 61-67) 명예교수



가 1988년작 ‘한국회화의 전통’을 재편집했다.

安평예교수는 지난 30여 년 사이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들을 추가하고, 색인을 보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새로 만들고 작품을 컬러화하는 등의 작업을 첫 책을 내는 열정으로 꼼꼼하게 진행했다.

개정판에서는 최신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도판과 참고문헌을 엄선했다. 새로운 세대의 한국회화사 입문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사회평론刊·값28,000원)

■ 설향(雪鄉)

— 鄭昭盛 지음



‘두 아내’(1999년), ‘바람의 여인’(2005년) 등 역사와 분단 문제를 다룬 6·25전쟁 소설로 주목을 받았던 단국대 鄭昭盛(불문 64-69) 명예교수가 7년만에 젊은이들 사람의 세계를 병리학적으로 풀어낸 장편소설을 펴냈다.

‘현우’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현우(나)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그 전후관계가 설명된다. ‘나’는 미술대학 시절의 친구인 ‘혜란’을 상대역으로 내세우면서 그 중심서사의 주변에 ‘태현’과 ‘미라’라는 남녀를 병치시켜 놓고 있다. 그러므로 소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네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시와에세이刊·값12,000원)

■ 통계의 매력

— 朴聖炫 지음



모교 자연대 학장, 평의원회 의장 등을 지낸 통계학과 朴聖炫(화학공학 64-68) 명예교수가 일상 생활에서 궁금증을 가져볼 만한 질문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출간했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어느 정도인가’, ‘소비자물가지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대한민국에서의 나와 같은姓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로또복권의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같은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을 확률’ 등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한편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들이 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는 數文盲과 통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統計文盲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아카데미刊·값20,000)

■ 우리는 사는 줄에 서있다

— 趙煥益 지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을 지낸 趙煥益(정치 69-73) 동문이 무역통상 분야에서 36년간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세계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저력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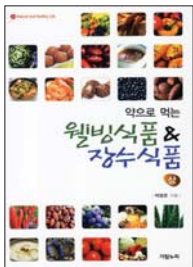
수출 최전선에서 무역대국 한국을 만든 우리 기업인들과 근로자, 관료들의 피나는 노력은 아프리카 오지를 돌며 보따리 장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에서부터 위기의 자동차부품산업이 굳게 닫혀 있던 도요타의 빗장을 열게 된 이야기, 7조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상하이엑스포 한국관의 대성공 이야기를 통해 펼쳐진다.

더불어 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뉴노멀 트렌드의 활용, 역발상과 융복합의 경쟁력 배양,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과의 공생, 한국인 특유의 개척 DNA의 발휘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창립출판刊·값16,000원)

■ 약으로 먹는

웰빙식품 & 장수식품(상)(하)

— 朴明潤 지음



매일 먹는 밥과 반찬, 색다른 음식들,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 영양제 등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각각은 인체에 흡수된 후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인 朴明潤(보대원 74-76 관악회 이사) 동문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식품이 지닌 영양학적 가치는 물론, 인체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사전식으로 상세히 풀어쓰고 있다.

‘상권’에서는 건강 장수식품과 무기질의 내용을 담았으며, ‘하권’에서는 건강 장수식품과 비타민의 내용을 담았다. (가람누리刊·값각권 6,000원)

■ 스마트 경영

— 宋在鎔 지음

모교 경영학과 宋在鎔(경영 83-87)교수가 제시하는 신 경

공연

■ 金祐廷 첼로 독주회

— 4월 19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金祐廷(기악 89-93) 동문(사진)이 4월 19일 오후 8시 서울 예술

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경북대 교수로 재직 중인 金동문은 베토벤과 브람스의 소나타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金일지 플루트 독주회

— 4월 22일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金일지(기악 03-07) 동문(사진)이 4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인 金동문은 이날 텔레만, 쿨라우, 프랑세 등의 명곡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丁皓鎭 바이올린독주회

— 5월 1일 영산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丁皓鎭(기악 88-92) 동문(사진)이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영산아트홀에서 독주회를 마련한다.

한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丁동문은 이날 슈베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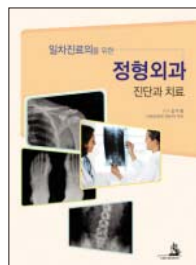
영 전략. 저자는 ‘패러다임 격변의 시대에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지며, 한국 기업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승리의 법칙을 제시한다. 2010년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의 승자가 되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 비즈니스 모델,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1세기북스刊·값15,000원)

■ 일차진료를 위한

정형외과 진단과 치료

— 金智亨 지음



서울성심병원 정형외과 金智亨(의학 88-94)과장이 일차진료를 위한 기본서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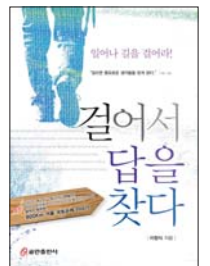
견관절(어깨), 주관절(팔꿈치), 수근관절(손목), 고관절(궁둥이뼈), 슬관절(무릎), 족관절(발목) 등의 질병사진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져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다음 풀이하는 식으로 구성

했다.

특히 더 중요하거나 더 흔한 병, 관심을 끌 만한 것, 단순한 사항을 먼저 배치하고,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은 후반부에 소개했다. 또 색인을 넣어 질병명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학서적刊·값50,000원)

■ 걸어서 답을 찾다

— 李暢植 지음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낸 우리펀드서비스 李暢植(SGS 13기) 대표가 혼자 걸어서 완주한 800km 겨울 국토순례 이야기.

이 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해남 팜밭마을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어서 완주한 국토순례의 기록을 오롯이 담고 있다.

겨울 광야에서 절대자를 체험하는 ‘영혼의 일기’이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순금처럼 연마되는지를 보여주는 ‘자기계발서’이며, 걷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걷기예찬기’이기도 하다. 또한 평소 우리가 잘 접할 수 없는 은행원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다. (쿠팡출판사刊·값13,000원)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2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2. 7~3. 18) · 일반 (2012. 2. 7~3. 7)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이종일 음대61
△이주태 인문85 △이찬희 자연75
△홍오기 HPM13

〈일반〉 △강구태 공대78
△고영간호93 △권태원 사대63
△권혁중 AMP5 △금미경 사회05
△김완사대73 △김경호 법대71
△김기영 공대99 △김동희 공대03
△김두훈 AMP69 △김상용 사회90
△김세진 공대99 △김수진 치대93
△김영태 의대84 △김용재 IFP5
△김용호 법대76 △김원규 AMFR26
△김윤정 사대02 △김인송 공대05
△김재명 AFB10 △김종상 공대56

△김주현 문리63 △김주현 사회05
△김중희 ALP13 △김진한 공대00
△김장기 의대89 △김철안 공대83
△김한기 BCP3 △김현아 음대86
△김형순 법대79 △류동춘 인문81
△류재우 공대07 △문세웅 AIP42
△민병주 AIP45 △박건우 의대92
△박수찬 IFP5 △박영근 의대79
△박영춘 AMP66 △박용중大院82
△박원명大院64 △박장영 공대58
△박재영 법대94 △박정준 공대93
△박종득 ASP9 △박찬영 사회01
△배명철 사회74 △백해자 간호64
△서동명 농대92 △성광제 공대81
△성봉경 법대78 △손태희 공대99
△신순애 간호83 △신준순 FIP2
△심동현 인문77 △심상준 자연05
△심우진 MBA09 △심창훈大院93
△안재혁 공대03 △양남용 ACPM6

△여용상 SGS20 △오상철 공대79
△오세명 자연07 △오소영 인문02
△오영택 자연99 △유병철 공대85
△윤본 공대54 △윤병무 ALP11
△윤여창 농대74 △윤종욱 인문06
△윤진희 GLP18 △이공재 법대83
△이대양 공대03 △이동원 법대90
△이상훈 법대81 △이석종 법대84
△이석준 ALP9 △이성호 GLP13
△이수동 의대68 △이영일 약대92
△이원석 AFP7 △이원진 법대05
△이윤아 AMFR23 △이윤우 의대71
△이인선 AIP45 △이재희 법대08
△이정언 의대92 △이정일 의대80
△이지숙 간호81 △이지연 음대93
△이진용 공대71 △이진환 ASP1
△이체동 HPM26 △이태희 保院87
△이택우 공대64 △이혜진 법대05
△이호성 의대70 △이희복 ACPM8

△임갑혁 공대69 △임경순 농대54
△임병용 법대80 △임병준 ACPM8
△장봉석 공대88 △전남희 자연98
△전영희 사회82 △전운수 IFP1
△정상훈 공대05 △정성천 AIC31
△정영의 문리55 △정용식 법대58
△정재우 環院03 △정정만 AIP44
△조기해 미대02 △조병문 공대59
△조승현 농대89 △조재호 GLP23
△지병전大院82 △장병모 공대84
△천은영 경영07 △최미경 자연83
△최원길 공대70 △최정환 공대94
△최종찬 ACPM8 △최형규 수의81
△광철호 인문80 △하미봉 음대72
△하운홍 법대80 △하조웅 공대75
△하홍식 ALP12 △한영성 문리59
△함형태 경영86 △현성수 行院78
△황정원 AFB11

△전재호95 △전지혜04 △정도86
△정용진98 △정우진95 △정은호80
△주순식73 △주홍민91 △진갑현89
△최창호95 △한낙경02 △홍민영96
◆자연대 △강경관70 △구종석93
△김광준81 △김남우03 △김성환00
△김수정02 △김영찬06 △김정원79
△김태원93 △김필광05 △김희웅83
△박성호02 △박영민01 △박용진99
△박용철72 △사대완84 △소병환93
△양희웅92 △원유덕81 △이영주02
△이일웅83 △이창현00 △이태림77
△이호선96 △이호성81 △임완중87
△임재훈05 △장원석96 △장종만72
△전성준81 △전용호75 △정황72
△정용준01 △조재민90 △조현진01
△한민현83 △황동규84

◆간호대 △고혜명65 △권오겸56
△김기희65 △김매자60 △김시정95
△김영신83 △성영희72 △염윤정06
△이선주81 △정숙자60 △조결자62
△최영희65

◆경영대 △강태웅79 △고희라99
△김기훈02 △김원중99 △모영철88
△박세환85 △박종완71 △박주양79
△서정호88 △안대훈04 △엄승섭87
△이재우02 △이재혁88 △이정민04
△장기권82 △장보훈83 △정준희89
△홍득관95 △황순배97

◆공대 △강경탁52 △강영식64
△고순민98 △공석봉51 △공인섭78
△공철규57 △곽삼진52 △곽성용77
△곽희로61 △구철희03 △권봉수62
△권상익91 △권오준02 △권혁중88
△김석93 △김철58 △김강수03
△김경원83 △김경준03 △김계천53
△김광은63 △김기남73 △김대영71
△김대호68 △김도현88 △김락성54
△김명준03 △김민성03 △김병남73
△김병훈98 △김상호88 △김선구71
△김성기80 △김성민99 △김세중05
△김순민66 △김승현88 △김양후05
△김영권01 △김영권83 △김영문56
△김윤제62 △김의석84 △김인동80
△김인용74 △김재봉69 △김재업87
△김정수67 △김정욱55 △김정우56
△김정원63 △김주열91 △김준용02
△김준우85 △김진수97 △김진욱99
△김찬식83 △김채식54 △김철호72
△김태선93 △김태영01 △김한규74
△김한길85 △김현국90 △김현종71
△김형석99 △김희경86 △남원창99
△남학우54 △노소영80 △노환영56
△리종민05 △명차리82 △문인삼55
△민병진82 △민영빈01 △민태기90
△박광표47 △박권식87 △박규식91
△박노열06 △박두근53 △박상철66
△박석현67 △박승균63 △박영규58
△박원준49 △박인오83 △박재복58

이 사

◆농대 △이흥기67
◆법대 △이해봉62 △장부웅59
◆사대 △김남조47 △임창선72
◆수의대 △박종명61
◆약대 △김광순59
◆의대 △신실60 △이운호68
△최동수54
◆치대 △이금룡58
◆대학원 △임대운84
◆AIP △강승우13
◆HPM △황영운4

일 반

◆인문대 △강상진83 △고종훈88
△공종민81 △김동국83 △김성호87
△김소희02 △김의진97 △남호식94
△노성환82 △박종덕74 △백승희83
△변우식77 △서노원81 △서명관80
△손정현84 △송기국76 △오세구72
△윤석진88 △이동익98 △이명관81
△이용운00 △이종필88 △이한복72
△정영덕78 △전상욱00 △정진기86
△조형동84 △최정운93 △허기원98
△황상선84 △황호성02
◆사회대 △곽귀병04 △구현희03
△김계수81 △김광일74 △김광재90
△김대규07 △김병훈99 △김승기69
△김연진85 △김영만84 △김준상84
△김흥수85 △김희철81 △류영기93
△문한성91 △박상훈87 △박용현90
△박재진89 △배명철74 △배문호85
△서동욱86 △석태수73 △손건수83
△송경모82 △송상종78 △안근배81
△안상환77 △오영환82 △이광오73
△이세준82 △이시은02 △이용직81
△이윤희00 △이재덕73 △이창구73
△이창수85 △임재급94 △전재범82

www.lh.or.kr



1962년, 최초의 아파트단지 건설
1971년, 최초의 서민임대아파트 건설
1989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1996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2005년, 세종시·학신도시 건설
2006년, 경제자유구역 건설
2009년, 보금자리주택 건설

할아버지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나의 대한민국까지

변화의 중심에 늘 LH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가 하는 일은?

공공 택지의 80% 공급
(여의도 면적의 213배)

총 448만호의 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의 80%)

장기임대주택의 72% 건설
(시세 30~60%의 저렴한 임대료)

산업단지 조성으로 169조원 생산,
32만명 고용(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2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종규88 △박종로01 △박종태61
△박지성03 △박현우07 △반병문74
△방정섭62 △방종식02 △배성준99
△배성환02 △백선욱62 △백학기52
△백효석62 △변정수89 △서민우00
△서영길59 △서의석49 △서장렬83
△서정욱53 △서정훈97 △선병수81
△성운준05 △성호용03 △손계육70
△손승래54 △손원수07 △송기선03
△송슬지05 △송인상00 △송인호91
△송재혁87 △송종은95 △송태을91
△송현택49 △신건학56 △신대승55
△신동엽00 △신상호54 △신요안83
△신현국68 △신현택48 △신효순57
△심윤식04 △심재한53 △심창생60
△인병휘59 △안석기03 △안재식03
△안정호96 △안준규01 △안준영52
△양우선88 △양정웅68 △양정훈02
△양희진02 △여태승82 △오경식75
△오서균63 △오항기46 △우종범85
△유병동94 △유병욱81 △유병욱97
△유석연87 △유인섭91 △육내승51
△윤 본54 △윤남진53 △윤남하51
△윤상철51 △윤재준60 △윤주홍70
△윤혁준86 △이 혁93 △이건홍68
△이경선03 △이경신82 △이경훈99
△이광진69 △이규재44 △이기영03
△이기자93 △이두호90 △이별철65
△이복영55 △이봉희73 △이상순67
△이석주57 △이성배74 △이세도73
△이세용82 △이승욱91 △이영근54
△이예민46 △이용재55 △이유진63
△이의남62 △이재순74 △이재환94
△이재홍71 △이정민52 △이정주65
△이정준01 △이준구97 △이준환52
△이지훈04 △이현순69 △이현진06
△이호정00 △이화준69 △이화흔74
△이희범02 △임인용63 △임종현04
△임홍준86 △장길희75 △장동근55
△장두희82 △장상배82 △장선학48
△장수경78 △장영식80 △장응재64
△장현봉76 △장홍규54 △전복현58
△전연욱57 △정건식55 △정근영85
△정대환65 △정무진64 △정민하91
△정용원76 △정원영48 △정의석85
△정자철77 △정진경48 △정태식92
△정해길65 △조건일62 △조경구83
△조민욱02 △조승우95 △조영선63
△조영호67 △조응현56 △조형태00
△주석진83 △최규현90 △최도영83
△최상민64 △최성일62 △최세근06
△최영박48 △최우석95 △최정림53
△최종민01 △최창희06 △최휘철62
△최희철63 △편영준77 △히정식04
△하태홍75 △한대수76 △한선화80
△한운섭79 △허광엽05 △허성윤90
△홍성관61 △황재광57 △황재웅96
◆농대 △강병석70 △강진표55
△강예복53 △고광진00 △공민영05
△권정혁60 △권혁세54 △김기철90
△김남현74 △김무수89 △김민근81
△김봉길89 △김성모85 △김영규51
△김영춘77 △김용찬57 △김원문67
△김원훈49 △김응년65 △김장섭84
△김재동78 △김재학53 △김정교49
△김종성55 △김종언91 △김진근56
△김진수70 △김진웅60 △김택구63
△남구한60 △남상운80 △노진표55
△류남렬50 △류종렬74 △민영준48
△민원동65 △박동규56 △박문호82
△박상순86 △박완수75 △박윤근55

△박장렬53 △박정윤55 △박종국57
△박종문64 △박종민82 △박종현77
△박준식72 △박준호83 △박지석63
△박한수82 △박홍목56 △변영숙70
△선우영원81 △손병구63 △손필상77
△송 흡03 △송기언55 △송기환86
△송원종84 △송종관52 △송준종55
△신민식57 △신상혁53 △신언곤54
△신일선58 △심상래02 △엄영현63
△오세훈58 △오준석72 △오현준56
△유근영54 △유도은01 △유지성59
△이계진56 △이계홍56 △이기순69
△이기환55 △이도전55 △이병근67
△이병전55 △이선진69 △이성수67
△이세영95 △이수욱55 △이승찬65
△이시규73 △이신호74 △이인형56
△이재구58 △이종렬50 △이중훈48
△이태영54 △이한승89 △이홍석52
△임명미59 △임성빈57 △임영준67
△임용섭87 △임종완04 △장성종58
△장인권81 △전남수54 △정민현55
△정연홍57 △정용복51 △정택방70
△정진국68 △정태수81 △정태원57
△조상기83 △조영래82 △주민영88
△천정하54 △최동열50 △최봉영75
△최영래95 △최은순78 △하 원82
△하병찬87 △하유미84 △한중희57
△한춘연52 △허문희90 △허정희72
△홍의표58 △홍택영57 △황용진56
◆문리대 △강낙중56 △강석명56
△강영원70 △구자홍63 △권병수66
△김기동65 △김남기64 △김명수54
△김수종68 △김순태56 △김영웅63
△김윤철67 △김준기61 △김진석59
△김찬근69 △김태욱58 △김조철68
△김홍철53 △나미례65 △노영찬49
△류수현48 △명제영55 △박상우58
△박애주47 △박용배59 △박원우50
△박종민54 △박찬범62 △박창고59
△박태룡56 △백영근55 △서인수50
△성명제54 △손장순54 △손후영61
△송병철47 △송창기57 △안사균47
△양철주59 △오인환55 △오임렬52
△우창웅52 △유진당54 △윤용달65
△이근남68 △이근택66 △이도영56
△이돈형58 △이동욱63 △이범주64
△이수호49 △이영훈65 △이재룡50
△이정덕55 △이정배56 △이정훈57
△이종인54 △이진희54 △이택주66
△이택휘57 △이혜봉62 △장덕주55
△장중하59 △장진수65 △장희호52
△정기인60 △정기호50 △정태식56
△조무현68 △조성술53 △차상철65
△차효인61 △천승걸58 △최 진56
△최 홍66 △최동환49 △최상규63
△최연대53 △최영길58 △하인경66
△한문수44 △한창호65 △홍경하54
△홍승국46 △황종철67 △황하복56
◆미대 △강찬성86 △김남용90
△김용환85 △김학두51 △민병목55
△박연도56 △박종규69 △변대성54
△서원영85 △손원잠65 △안종배91
△윤형실54 △이근택87 △이성은64
△이은심78 △이재호04 △임상진54
△장혜진01 △전경미02 △정선화56
△정영조55 △천진희76 △최진주81
△한연호77 △함혜란83
◆법대 △강기철48 △강진성55
△강희철90 △고문승56 △고왕석61
△구자순53 △김 철83 △김광주62
△김광현54 △김국열92 △김득환79

△김명종61 △김병주84 △김병호82
△김상기63 △김선중70 △김성룡60
△김시영71 △김영광84 △김용대79
△김용인69 △김용환52 △김의환81
△김정기75 △김정환57 △김창국56
△김창근51 △김학수65 △김해산57
△김현민61 △김현영63 △노승환58
△노창동82 △노훈건62 △류재신48
△류준형51 △문대성85 △박광호04
△박병연67 △박봉규67 △박상형48
△박용승72 △박우순58 △박인환51
△박태호67 △박형섭81 △반성우53
△방인걸85 △배기열82 △백 린59
△변은석89 △석성환54 △송남석55
△송민호55 △신성우60 △신수길77
△신원도87 △신호현60 △심상명60
△안재영70 △오치룡65 △유광현69
△유원규71 △윤서성62 △윤장석89
△윤재기63 △이교선55 △이병돈73
△이상용67 △이상철52 △이석수81
△이순기03 △이승주05 △이승철92
△이승환55 △이영의59 △이용관99
△이우철67 △이원기81 △이재인93
△이제재47 △이종진63 △이창범53
△이창범53 △이태윤05 △장명관51
△장백규78 △장정우89 △장준봉55
△장지용97 △전오영82 △전용희81
△전태환84 △전하은74 △정동원51
△정동현99 △정현수75 △정혜경03
△조성일61 △조수현94 △조용석53
△조인제90 △조해현81 △진동수67

△채승우88 △추영일61 △한경수72
△한용기62 △호영진56 △홍성필89
△홍성필89 △홍진영00 △황 철62
△황도연52 △황선무58 △황영욱59
△황운주52 △황재성64
◆사대 △강양희57 △강장완58
△강한필59 △고병철61 △곽지훈77
△구보안59 △구사용51 △구자혁57
△권문한74 △권오룡56 △김미정83
△김병수59 △김상수57 △김유명69
△김종두97 △김종석55 △김지수88
△김창걸56 △김창경61 △김창호69
△김혜민04 △김혜선02 △김화인04
△남한식51 △류은선87 △박광채85
△박성민70 △박영목56 △박은실02
△박종삼59 △박지영07 △박춘진57
△박한기99 △박현수76 △방재근62
△백영묘98 △봉정모72 △서견룡60
△서태근56 △서해지06 △석용징77
△성하경56 △손수일48 △송성한64
△송승석51 △송영훈91 △송은경06
△송재숙71 △신덕범01 △신동로66
△신찬우48 △심숙주74 △안영숙52
△안중환55 △안희의54 △오경자52
△온기수74 △우명길68 △우인섭47
△유명선67 △유민영57 △유병섭82
△유영준84 △이기종56 △이득우74
△이병선51 △이봉수74 △이상재59
△이석주60 △이성구64 △이성규57
△이세현55 △이승립66 △이승이90
△이양선56 △이영주56 △이영호50

△이윤우64 △이재민79 △이재선01
△이정태55 △이정태70 △이종명54
△이주행67 △이창호71 △이환배54
△이흥종54 △임승철00 △임학수69
△장정현78 △전기재51 △전병수51
△전수남59 △정광훈00 △정동춘80
△정보미06 △정봉문91 △정영수84
△정영호52 △정운영76 △정의상55
△정의포70 △정재도82 △정호경52
△조남진58 △조성호75 △조의래56
△조철원55 △주봉노55 △최길순49
△최병록49 △최우식03 △최은자85
△최익규50 △최정숙44 △하민천54
△한남수91 △한병우92 △홍정희55
△홍종봉54 △황광수56
◆상대 △강경만54 △김경원58
△김기학55 △김동휘48 △김범수57
△김봉환44 △김상경61 △김상희69
△김선길45 △김성주55 △김연조56
△김영무56 △김웅렬49 △김정삼59
△김정웅60 △김중해51 △김주호50
△김창수63 △류태환48 △민병래52
△민병훈56 △박광규56 △박기환61
△박상호63 △박진화55 △배선홍49
△백기환53 △서규상53 △서병태63
△송인상55 △신중현56 △심남진49
△심병구49 △안기봉55 △양세규62
△어윤봉57 △오기화57 △오맹선53
△오장환54 △오정현54 △우일균50
△유명희57 △이 연59 △이강전71
△이건재52 △이경모52 △이공훈60

www.haji.co.kr

Advanced Tech, Excellent Water & Happy Life

기술과 경험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해수담수화·고도수처리 전문기업 - Haji

상수용 해수 담수화 설비와 원자력 및 화학 발전소, 석유 화학 PLANT, 제철 및 전자 산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초순수생산수처리설비를 기획,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TURN-KEY 방식으로 21세기에 요구되는 최상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처리 및 순수 생산 설비
Pretreatment & Demineralizer System
- 이온 교환막 분리 순수제조 설비
Membrane Deionization System (MDI[®])
- 촉매식 용존산소 제거 설비
Catalytic Oxygen Removal System (CORS)
- 역삼투압설비
Reverse Osmosis System(RO)
- 해수전해 염소주입설비
Seawater Hypo-chlorination System(HYPO)
- 복수탈염설비
Condensate Polishing System(IMR[®]II)
- 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경정 정비
Operation & Maintenance
- 하·폐수 처리설비
Sewage & Wastewater Treatment System

50년 노하우와 세계 정상의 기술력이 탄생시킨 최고의 미네랄 알카리수

국내 최초 수처리 플랜트를 공급한 이래 수처리분야 최고의 기술과 경험으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한국정수공업(주)가 50여년 축적되어온 R&D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좋은 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양질의 미네랄 알카리수 개발에 성공, 미네랄 알카리수 'A수'를 선보입니다.

US.FDA Reg.No: 12935696256

본 제품은 미국 FDA 안전성 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업허가: 여주 2009-007호

알카리수는 만성질환,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점 상담 및 제품구입 문의

1588-9719

www.eisu.co.kr

세계 최고의 물처리 전문기업

한국정수공업주식회사
Hankook Jungsoo Industries Co., Ltd.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0
TEL : (02)855-0661~3 (031)491-2175~7
FAX : (031)491-3665

△이기주⁴⁶ △이병국⁵² △이성위⁶¹
△이성희⁷⁰ △이순학⁶⁴ △이연수⁶⁴
△이영상⁵¹ △이재등⁵⁷ △이종수⁶⁴
△이종연⁵² △이창숙⁵⁷ △이창준⁵³
△이필원⁶⁰ △이홍근⁷⁰ △임정일⁶²
△장기남⁶¹ △장동수⁵⁸ △전완식⁶⁰
△정상철⁶⁰ △정연덕⁵⁰ △조동화⁵⁵
△조문제⁵⁹ △조현택⁷⁰ △진창갑⁵⁴
△최병완⁵⁷ △추준석⁶⁷ △한영국⁵⁰
△허 석⁵⁹ △홍동진⁴⁸ △홍순대⁵⁵
◆생활대 △강은영⁸⁴ △구명진⁰⁵
△권경현⁰³ △김경애⁶⁶ △김나연⁹⁴
△김남미⁷³ △김동우⁹⁹ △김정희⁷⁶
△문영보⁷² △문혜정⁹² △박미현⁰⁶
△박주희⁸⁵ △배순영⁸⁵ △신은철⁷³
△인영희⁵⁷ △안은정⁰³ △오현숙⁶⁸
△유경순⁶¹ △윤혜원⁸² △이규진⁵⁸
△이상의⁵⁶ △이정자⁷⁷ △임인순⁵⁸
△조정애⁵⁷ △최규순⁶¹ △하승연⁰⁵
◆수의대 △구본훈⁵⁴ △권순현⁷⁶
△김남훈⁸⁷ △김재하⁴⁹ △김종면⁵²
△김협수⁸¹ △김휘석⁷² △노병의⁶¹
△명수남⁵⁴ △박기환⁴⁹ △박만규⁵⁰
△박신규⁶¹ △박영혜⁸² △박현기⁶⁶
△백영환⁵⁶ △송남훈⁶⁴ △양재만⁹¹
△오남진⁶⁷ △오순민⁸¹ △유보희⁸²
△유한상⁷⁸ △윤영원⁶³ △이상우⁶⁵
△이학범⁰⁶ △이호선⁹² △임지혜⁹⁶
△정용면⁵³ △조동진⁸⁶ △조종기⁹¹
△조종호⁴⁹ △최영식⁶¹ △최윤주⁰⁰
△홍순국⁵⁴

◆약대 △권미정⁹⁴ △권창호⁴⁷
△김경진⁹¹ △김기현⁵² △김미혜⁸⁷
△김삼영⁵⁸ △김영식⁷⁴ △김재성⁶⁹
△김재환⁶⁸ △김정화⁵⁷ △김진형⁸⁸
△김현욱⁵⁷ △김홍대⁵⁹ △김홍집⁵⁷
△남기혁⁵² △남기혁⁵² △맹호영⁸¹
△문창기⁵² △박성주⁷⁷ △서동화⁶⁹
△서성수⁵³ △손우성⁹³ △심은숙⁵¹
△안병주⁶⁹ △안양진⁵³ △엄문경⁸⁵
△우재성⁷¹ △유도봉⁶⁶ △윤은정⁰³
△이동악⁵⁷ △이병국⁵⁵ △이상준⁶¹
△이애영⁵⁶ △이원재⁵³ △이일영⁵⁶
△이재은⁵⁵ △이한아⁰³ △이혜정⁴⁶
△이홍래⁵² △장봉수⁶¹ △정원장⁰⁵
△정은희⁸² △조미정⁸⁷ △조승희⁸⁷
△조양래⁷² △조은정⁰⁰ △조종현⁶⁸
△조지웅⁵³ △지상구⁵⁴ △차민정⁰⁵
△채계화⁵¹ △최윤정⁰⁴ △홍승철⁵³
△황의성⁶¹
◆음대 △김경옥⁷⁴ △김상원⁸⁷
△김수연⁹⁴ △김영숙⁸⁵ △김은경⁵⁷
△박성진⁰² △박정옥⁷⁸ △송인정⁹⁵
△윤명순⁷⁹ △이규용⁷⁸ △이종석⁷²
△정이와⁰³ △지철우⁸⁸ △한혜자⁶¹
△황수아⁹⁸
◆의대 △강내열⁵⁶ △김길남⁷⁵
△김종박⁵⁹ △김창석⁸⁵ △김현경⁹⁹
△김현정⁰³ △김형규⁵⁵ △도병욱⁸³
△문 형⁶⁰ △박성근⁸⁹ △박수영⁰⁵
△박신근⁶¹ △백만기⁴³ △성낙응⁴⁴
△송익훈⁴⁵ △신용찬⁵⁴ △심재성⁰⁵

△안병문⁶⁹ △오민구⁷⁶ △오세윤⁵⁹
△오준호⁴⁵ △왕영종⁵⁴ △유종근⁷¹
△윤경선⁶³ △이봉화⁷⁵ △이상윤⁹⁶
△이승남⁷⁶ △이재화⁰⁶ △이정균⁵⁶
△이종주⁵⁷ △이충원⁷⁶ △이하길⁵¹
△이학중⁵² △임경환⁰¹ △임형석⁸¹
△장선택⁴⁶ △조남혁⁷⁰ △조병주⁴⁶
△조승현⁴⁵ △주정화⁵² △주진순⁴³
△진홍용⁷⁰ △차명진⁰¹ △최 현⁷⁴
△최수용⁰⁷ △최혜령⁰³ △최희목⁵¹
△한국남⁹⁶ △한승식⁰¹ △한예택⁵⁰
△한정규⁹⁸ △홍순원⁴⁹ △황순욱⁷²
△황태영⁹⁵
◆치대 △강신구⁶⁵ △강우곤⁶⁴
△강인희⁷⁷ △강정옥⁸³ △구동준⁸⁷
△구본석⁷⁸ △김 옥⁸⁸ △김경남⁷²
△김기흥⁷⁵ △김능세⁷⁰ △김선일⁵⁸
△김시영⁰⁰ △김연만⁵⁵ △김영권⁵⁵
△김화준⁵⁹ △남승우⁶³ △박경정⁶⁹
△박세운⁸⁶ △박용학⁵⁸ △박용한⁷⁸
△박태선⁵⁴ △서상주⁵⁶ △석광덕⁶⁷
△안복훈⁸⁰ △여인호⁷⁹ △오인식⁵⁶
△용호택⁶⁷ △윤철민⁸² △이병윤⁵³
△이상선⁸¹ △이승중⁶⁹ △임형우⁵⁷
△장명우⁸³ △정철표⁷⁴ △조상래⁸³
△조일제⁷⁷ △조한준⁵³ △최낙준⁷²
△한건웅⁶¹
◆대학원 △곽영세⁸⁶ △김동선⁵⁹
△김형욱⁹⁶ △류병관⁸⁹ △모수미⁷⁵
△박영수⁹⁴ △서상혁⁷⁹ △송강영⁹¹
△안혜경⁰⁰ △양기주⁹⁵ △양덕관⁹¹

△오문성⁸⁴ △오진욱⁹² △이경희⁹⁰
△정연준⁹⁵ △조석준⁵⁷ △조재연⁸²
△최병희⁶³ △토토쿠니⁰¹ △함현식⁸²
△황종로⁸⁰
◆경대원 △권영천⁶⁶ △박정수⁹³
△서동홍⁷² △장대길⁶⁸ △조정희⁶⁹
◆MBA △정성훈⁰⁷
◆교대원 △김성기⁹⁴ △황현익⁶⁵
◆국대원 △김운식⁰³ △예지영⁰⁴
△우유진⁰⁷ △유석원⁰³
◆보대원 △구군화⁶⁷ △김영웅⁷⁵
△김은옥⁰² △김종만⁶² △김학기⁷⁶
△문성환⁹⁵ △반정옥⁶⁰ △방옥근⁸⁵
△송경섭⁶⁹ △이한구⁶⁹ △전대윤⁷⁷
△정상호⁹⁹ △조현우⁰³
◆신대원 △윤임술⁶⁹
◆형대원 △강성원⁶⁸ △강인준⁷¹
△강훈철⁸⁰ △김광림⁸⁰ △박성환⁸⁴
△박원신⁷⁷ △성낙승⁶⁹ △심윤수⁸¹
△양준철⁸³ △이강두⁷¹ △이성기⁶³
△이종열⁹⁵ △임세환⁷¹ △조경규⁸⁷
△채희성⁷¹
◆현대원 △김경대⁸³ △김기천⁸⁴
△김성중⁸² △김정아⁹⁴ △안승홍⁹⁴
△양수정⁹² △양언모⁸² △이필수⁷⁷
△장재민⁰⁷ △최 준⁹⁴ △최준호⁸⁹
△최형식⁸⁵ △황익수⁰³
◆AMP △가갑손¹⁸ △곽덕근⁵⁴
△구임식⁷⁰ △구종태⁴⁵ △김경환³¹
△김광수⁴⁵ △김교철²⁵ △김구섭⁶⁶
△김성호³² △김연수⁶⁶ △김진찬⁴³
△김치근⁷ △나익수³⁸ △문만수³²
△민영복⁴² △박병억²⁰ △박인석⁵³
△박일동⁶⁶ △박종덕⁶⁴ △박홍래¹⁰
△방상우³¹ △송병진⁴⁴ △신용무²⁶
△신용문⁶⁸ △신종식⁶⁴ △심계진³⁶
△안영복¹ △우정목³⁷ △유시종¹⁹
△유준웅³¹ △이강남⁴⁴ △이성길³⁴
△이준환⁶⁹ △이준호⁴⁶ △임창건⁵⁹
△정공식⁶³ △정기택³¹ △정석재⁶¹
△정용근⁴⁵ △정재성⁷ △조승조⁶⁸
△채갑병⁵³ △최대업³¹ △최동만⁶⁶
△최영석¹¹ △최영철²⁰ △최용목⁵³
△최인호¹² △최종원¹⁶ △한형수⁴⁷
◆AIP △강인순⁹ △곽문연⁸
△곽상욱³⁰ △김성환⁴³ △김영선²
△김윤필³² △김장근¹⁵ △김정웅¹²
△나기환²² △문일권³⁹ △박영욱¹⁵
△서영복¹⁹ △심영복³⁸ △오태호³³
△유창열⁴⁰ △이갑순⁹ △이건구²⁴
△이상윤⁴⁵ △이석원³⁶ △이재서¹¹
△이종기⁵ △이현영⁸ △조일래⁴¹
△조창식⁴⁵ △최순규³⁶
◆ACAD △고세일³² △곽기현⁷⁰
△김덕영¹⁸ △김수봉⁵⁷ △김승영⁴³
△김태환³⁸ △김형복²⁷ △박남신⁷⁰
△박해도⁶⁶ △박형구⁷² △방동식²⁷
△성시철⁵⁵ △송원순⁷² △신정수¹²
△안희수¹¹ △오준환⁶⁹ △오필기²
△윤용인²¹ △이관영² △이덕수⁴⁴
△이정구²² △이태영¹¹ △임대환⁶⁹
△임재표⁷² △임충규⁴⁵ △장기윤⁷²
△장혜익³⁴ △전병순⁴² △조장연⁷²
△채증석¹³ △최병길¹¹ △최병인⁵
△최재승³⁸ △최형태⁶⁸
◆ABP △구태근⁷ △권금자²³
△김영근¹⁵ △김현식²⁰ △박재선¹⁹
△배영운³¹ △이은석³⁶ △전인희²⁰
△전정택¹⁸ △조상익² △조용호³⁴
△황용창¹¹
◆SGS △권오신⁵ △손창민²⁴

△신경근²⁷ △옥병덕²⁴ △유금종³
△이영강²⁴ △이창복¹³ △임득현⁶
△전영성²⁴ △전우대² △정근수²⁴
△정평화⁶ △정해순³ △조용기¹⁹
△최상현²⁰
◆CHCN △문순자¹¹ △정경란⁸
◆APC △서평근⁵ △신광현⁷
△이우진⁴ △조성구⁷ △조성출⁵
△최병하⁶
◆HPM △권오성²³ △김병민²⁵
△김현수² △민창기²⁶ △손규호¹¹
△신현희²⁰ △엄금람¹⁴ △이복임¹²
△이상완¹¹ △이석기¹⁴ △이석태²³
△이재우²³ △이정현⁹ △이채동²⁶
△전영숙⁵ △조경순¹² △조정식²³
△주영진² △최낙원¹⁶ △최봉영²²
△하경호²⁷ △한상섭¹² △한영희²²
◆AMPP △고영수¹⁰ △김종대⁴
△남석희⁵ △방석관¹ △송실광⁷
△양현수⁹ △이은세⁹ △최익현²
△홍석우⁹
◆AIC △권성욱⁸ △김동현²⁵
△김민철³¹ △김석영²⁵ △김인기²
△김형준²⁴ △민홍식²³ △박철민³¹
△배대현²⁵ △윤영기² △이현태²¹
△한기식²⁷
◆AFB △강희갑¹¹ △김명섭¹⁰
△김성수¹⁰ △김수호⁹ △김유순⁹
△김재명⁷ △김호운⁴ △백귀열⁸
△손수근⁸ △이상일² △이승화¹¹
◆AMPFRI △강태호²² △김진수⁷
△백두철⁹ △양동수⁶ △이규태¹⁴
△장석철⁵ △천병기¹⁹
◆ACPM △김기식⁶ △김창환⁵
△우경섭³ △우순근⁷ △이영호⁸
△이희복⁸ △정동현⁸ △정일주¹
△하대청⁵ △황성욱⁸
◆FIP △윤호석⁸
◆GLP △강병섭²¹ △공한철¹⁰
△김영철¹¹ △김영훈¹⁸ △김용태¹⁷
△김우관¹⁴ △남호동²⁰ △박옥만¹⁸
△박희순¹² △방관수²³ △심상운¹⁴
△원석희²³ △유영은¹⁹ △이동향⁹
△이정우¹³ △이형석²³ △이형훈²²
△장현봉²⁰ △정동훈²⁰ △정종원¹⁷
△한충권²⁰
◆ALP △곽상욱¹² △김중희¹³
△장석산⁹ △좌상봉¹² △차명륜⁴
△허영호⁴
◆SPARC △강도영¹⁰ △김유경²
△변상남¹⁰ △이덕록⁷ △황 철⁷
◆AFP △송효순⁷ △이성열³
◆ASP △문점수²¹ △엄정열¹³
△유태원¹⁶ △진영호²⁰ △최강수²¹
◆IFP △김용배² △백종화²
△전윤수¹
◆BCP △문석용⁶

분 담 금

◆시드니지부 1백만원

2 월 계 : 60,060,000원
평생회비 : 40,200,000원
입 회 비 : 850,000원
총 계 : 169,818,500원

SK증권 주파수

2011 금융앱 어워드 대상

증권은 물론 금융을 통틀어 종합 1위!

[올해의 금융앱] 대상-SK증권

SK증권이 은행,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권을 통틀어 당
대상 선정됐다. 심사위원 평가에 따르면
SK증권은 고객충입력 1위, 비즈니스 2위
콘텐츠 2위, 디자인, 5위, 기술성 1위 등
30)에서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으며 최
평가 1위로 선정됐다. SK증권 스마트폰
주파수의 차별화된 기능과 콘텐츠에
대한 결과다. 종목을 대한 목표 매매 타이
를 알려주는 파수꾼과 투자자가 원하는
가 차트종목을 골라보는 인공지능이 대
적이다. 주가에 온종일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직장인 등 개인투자자로서 필수아이
템인 셈이다. 파수꾼은 종목에 대한 목표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사용자
특정종목에 대한 감시기능을 설정하면
목에 관한 뉴스와 공시, 목표가 및
 도달 시 실시간으로 알람 서비스를 보
는 기능을 제공하는 상에서도 매매 타이밍 확인이
해주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은 원하는 차트 패턴
이면 유사한 패턴의 종목을 찾아 주는 패턴 종
으로 내가 찾는 추가차트 형태의 종목을 골라준다.

주파수만의 강력한 기능

파수꾼 기능
내가 등록한 관심 종목 목표 시세 정보들을 실시간 알림으로
바로바로 알려주어 주식청을 매시간 지켜보지 않아도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인공지능 종목검색
차트 패턴을 통한 종목 검색을 쉽고 빠르게 도와주는 기능으로,
손으로 내가 원하는 차트패턴을 간단히 그려주기만 하면
유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정확히 검색해줍니다.

*당사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투자 전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0.15%+1천원~0.05%+1백만원(거래금액별 차등)

고객행복센터
1599-8245 행복파트너 SK 증권



해외쇼핑 할 때, 모르고 계셨죠?



가격표에 달린 또 다른 가격표

해외에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1%의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비씨 글로벌카드는 국제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제카드 수수료 없는 대한민국카드 비씨글로벌카드

비씨 글로벌카드의
세계적인 혜택



- 하와이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 10% 청구 할인 및 특별한 SHOP HAWAII 프로그램 혜택 제공
- 광/사이판에서 결제한 모든 금액 10% 청구 할인
- 호텔스닷컴코리아(<http://kr.hotels.com>)에서 비씨 글로벌카드로 원화 결제 시 20% 청구 할인 (월1회 최대10만원)
- *기간: 2012.2.1 ~ 2012.4.30 *호텔스닷컴 자체 할인쿠폰 중복 적용 불가
- 해외사이트 및 해외 유명 브랜드 청구 할인
lherb.com, GNC.com, Bathandbodyworks.com 20%, Amazon.com/ETS(토플응시료) 5%, GAP/Victoria's Secret 20%
- 미국 유명 백화점 및 레스토랑 할인 Macy's 10%/Bloomingdale's 15%, Cheesecake Factory/Red Lobster/P.F. Chang's 1만원 할인



*이용가능 국가/가맹점 및 프로모션 상세 내용은 비씨카드 홈페이지 (www.bccard.com)를 참조하세요. ※ 비씨 글로벌카드는 국내이용분에 대해 국제카드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없는 카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2년 9월 제2회 농어촌 재능기부활동 수기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재능기부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기여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1년 농어촌 재능기부활동 수기공모 수상작품집
농어촌 재능나눔 이야기는 스마일재능뱅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대상 재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영·마케팅 지원 / 사진·영상 촬영/컴퓨터 교육 / 마을 홍보 / 그림 그리기 / 영·유아 보육 / 아동 학습 지도 / 노인 돕기 / 다문화가족 지원 /
마을 경관 조성 / 스포츠 강습 / 디자인 / 의료봉사 / 쇼핑물 운영 / 농산물 유통·가공 / 농산물 품질관리 / 행정업무 지원 등

농어촌 재능기부자의 기회와 혜택

-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인하여 자원봉사인증서 및 재능기부증서를 발급합니다
- 재능기부 우수자를 포상합니다
-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단체 및 기업의 홍보를 지원합니다



스마일 재능뱅크

스마일 재능뱅크 (www.smilebank.kr, 재능기부 콜센터1577 - 7820)는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마일 재능뱅크는 재능기부자와 농어촌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재능나눔의** 장입니다.
본 홍보물은 한국마사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